朝鮮日報
夕刊
二十八日(金)
本紙朝夕刊二十頁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奎??

日中關係를決定할 大分岐點에直面

成都事件은中國人의深刻한抗日意識表現

國府의誠意如何注目

【上海特電】일즉이 前例업는今回의 成都의 日本人殺傷事件은 日中關係緩和의 積極的機運이濃厚하여 움지이고잇는 此際에 突發한만큼 兩國의 外交關係에미치는 影響은 各方面에서 非常히 注目되여잇다

卽 成都事件은 表面的으로는 去二日 成都總領事代理로서赴任한 岩井總領事代理의 成都入을 妨害하는 民衆의 暴行인데 이러한 民衆의 暴動으로 드듸여 日本人四名이 殺傷에 이른것은 그裏面에잇서 南京政府의 指令으로 岩井總領事代理赴任을 압두고 四川省에 나타난 抗日意識 激化의 結果임은 諸種情報에依하야 明白한바로 長沙에 在한 爆彈事件, 萱生事件等中國民衆의 深刻한 抗日的感情의 根源을 反映하고잇스며 南京政府가如斯한 民衆의 抗日風潮를 徹底的으로 取締할수잇는가 업는가하는點은 目下의日中關係打開上極히 重要한모멘트가 되는것으로 成都事件에依하야日中關係調整이 도리혀促進되는가 또는 停頓되는가 그動向은 非常히 델리케ー트한 分岐點에서다할것으로 此數日間의 南京政府의 態度는 極히重大되여잇다

駐中武官會議

廿七、八兩日上海에서開催

【上海廿六日發同盟】天津에서開催된 北中武官會議에 繼續하야 駐中武官會議는 影佐中佐를 마지하야 廿七、八兩日 當地陸軍武官室에서開會되엿다 右會議에는 喜多大使館附武官以下 宇都宮、左良、雨宮(南京)、渡(漢口)各地駐在陸軍武官이 出席하야 影佐中佐로부터 中央部의 方針及北中武官會議의結果를 報告한後 今後對中方針에對하야 協議한外 今回 成都에서發生한 不祥事件에對하야 重要協議를 遂行하리라는데 今月末 歸京할 影佐中佐는 成都事件이 重大性을 帶하게되엿슴으로 其解決에關한 見透이서기까지 當地에 滯在하기로決定이다

南中總領事會議

【上海二十七日發同盟】南中總領事會議는 二十七日午前十一時半부터 大使館事務所에서 開催하야 太田事務官 若杉參事官 須磨南京 三浦漢口 堀內天津 中村廣東各總領事其他書記官 各領事出席으로 太田事務官으로부터 對中外交에關한 本省의 意向을 詳細히 說明하고 各領事로부터 現地側의 意見으로 各自의見解를 開陳하고 太田事務官은 此를本省에 傳達키로되엿다 그리고 成都事件에關하야는 須磨南京總領事로부터 國民政府와의 交涉經過를 報告한後 今後對策을 協議한結果 重大決意로서 國民政府의 責任을 뭇기로 意見一致하고 午後二時散會하얏다 二十八、九兩日도 會議를 續行하고 太田事務官은二十九日離滬한後 川越大使의 來着을기다려最後的協議를할터이다

排日空氣根絕의 强硬意見有力

國民政府는無誠意、責任轉嫁

成都事件과外省對策

【東京電話同盟】成都事件에關하야 外務省에서는 現地에 派遣한 外務當局은 全面的으로此際中國에在한 排日空氣의 根絕을 期할것이라는 强硬意見이有力하다 그리고 國民政府에는誠意가업고 責任을 共産分子에게 轉嫁하야 責任回避의 態度를 取하고잇서 問題를 地方的問題로 看做하고 極히 消極的이다

【南京二十七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 成都不祥事件調査를爲하야 二十七日外交部專員楊開甲 情報司日本科長 邵毓麟兩氏를成都에 急派하엿다 二十八日成都의 遭難現場에서 糠谷重慶領事等立會로 實地調査를 하기로되엿다

【重慶二十七日同盟特派員發】成都의 暴民日本人虐殺의 報道가傳播되자 重慶의中國紙는右事件을 中國民衆公憤의表現이라고報道하야 此를成都總領事館再開와 結合식혀民衆을煽動할려 하엿스나 事件의重大性에 狼狽한中國官憲은 二十六日에 至하야 此等成都總領事館再開의 記事의揭載를禁하야 事件의 收拾에 奔走하고잇다 當地官憲은 新聞의 事態는 表面緩和되엿다

成都遭難者判明

渡邊、深川兩氏死體임을檢證

重慶은表面은平穩

【成都二十七日同盟特派員發】志波重慶領事館警察署長의 死體檢證結果 渡邊、深川兩氏의 死體인것이 判明되엿다 兩氏의死體는 腐爛하야 目不忍見의慘狀이다 또 田中氏는 病院에 瀨戶氏는 警察公署에 各各收容中이다

駐日蘇大使館參事官 東鄕局長에抗議

日本飛機越境햇다고

【東京電話同盟】駐日蘇聯大使館參事官라이빗트氏는 廿七日午後二時 外務省에 東鄕歐亞局長을 訪問하야 去十四日및 廿三日 兩回에亘하야 滿蘇東部國境하바롭스크附近에서 日本軍飛行機가 不法越境하얏슴으로 莫斯科政府의訓令에基하야 嚴重抗議한다고 抗議書를提出하얏는데 이에對하야 東鄕局長은 關東軍은 所屬各部隊에 絕對越境치말도록 嚴命하엿스므로 이런事實은 업스리라고 答하엿다

國策七項目에對해 兩黨의諒解要望

內閣翰長安藤氏訪問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國策七項目을決定하고 具體案作成을 進行하고잇는데 그實現을 爲하야는 政府兩黨의支持가 必要함으로 藤沼翰長은 二十七日午前九時半 民政黨本部에 政友會의安藤幹事長을 訪問하야 政府는 庶政一新의 實을擧키爲하야 國策七項目을決定하고 그具體案作成에 着手하엿는데 이의實現을 爲하야는 兩黨의 協力을 求한다고 懇談的으로 國策七項目의 內容을說明하고 協力을求한데對하야 安藤幹事長은 國策의 內容及政府의 意圖가 잇는데로 하야 具體案의 成案을 기다려 黨議에 附하야 態度를 決定하겟다는 程度로 끗치고 會談一時間만에 辭去하엿다 또 藤沼翰長은 同十時 民政黨의 永井幹事長을 訪問하야 協力을 求하엿다

對議會策準備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安藤幹事長은 藤沼翰長의 訪問을 바든後 政民兩黨의 協力을 求하엿는데 이는 政府가 議會에對하야 電力統制案을 中心으로 協力을 求하는 것으로 政府에는 政民兩黨의 協力에 依하야 國策을 實行코저하는 것이며 特히 電力統制案은 政界에 反對論이잇서 國策遂行에 支障이 잇슬것으로 政府는 兩黨에 提出할 對議會策의 準備를 求하야 對議會策의 準備에 着手하기로되엿다

四相會議內容

【東京電話同盟】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遞信省에서 開催된 四相會議는 岡田首相 賴母木遞相 小川商相 前田鐵相 島田農相等이 出席하야 電力統制案 民有國營案에 對하야 遞信省案에 對한 商工省의 反對意見의 調整을 하고 이에對하야 賴母木遞相은 九月五日 午前九時부터 第二次四相會議를 開催하기로決定하고 同十時散會하얏다

一、民有國營案의 內容
一、民有國營案의 實行에 依한 料金은 如何히 低下할수잇는가
一、水利權의 方法 將來의 計劃
一、電力界에 及하는 影響

密輸의嫌疑로 臺灣人監禁

天津中國稅關에서

【天津二十七日發同盟】去二十四日 中國公安局員및 稅關吏十數名이 天津中國街에 居住하는 臺灣人店舖에 니르러 同倉庫에잇는 砂糖二千袋를 密輸嫌疑로 同人을 公安局에 送致하고 그家族을 監禁하고 다시二十六日公安局稅關吏十名이 不法하게 만대로 同店의倉庫에서 砂糖三百袋를 내여간 事件이잇서日本官憲은 中國不法行爲를 極度로 憤慨하고 西總領事는 天津稅關長 公安局長을 訪問하고 嚴重抗議書를 提出한結果 稅關長은 二十七日 總領事館을 訪問하야 遺憾의意를 表示하엿다

人事·集會

▲李樹基氏(舒川郡守)新任人事次 二十八日來社

▲李信彙氏 京城府會議員立候補人事次來社

▲阪本一郎氏(東京衛美堂社長)二十七日入京朝鮮호텔投宿中

▲鶴野牧氏(鐵道局貨物係長)新任人事次二十八日來社

一日豫定이 늣저진 川越大使는 二十八日午前八時 靑島를 出發하야 大連丸으로 上海에 向하얏다 上海着後直時 若杉參事官以下와 會見하야 成都事件對策에 對하야 協議할터이다

鮮滿拓殖創立總會

九月九日京城에서開催

鮮滿拓殖會社의 創立總會는 九月九日에 京城에서 開催하고 滿鮮拓殖股份公司의 設立總會는 九月十二日에 新京에서 開催하기로決定하엿고 滿鐵社員木村通氏로 內定하엿다한다

南總督各局課巡視

着任第三日 南總督은 二十八日午前九時 總督府에 登廳하야 大野政務總監을 帶同하고 廳內各局課를 巡視하얏다

川越大使靑島出發

【靑島二十八日發同盟】颱風으로

日濠通商交涉再開

濠洲政府에提議

駐「시드니」村井總領事로부터

【東京電話同盟】日濠通商關係는 斷絕以來 濠洲側羊毛業者와 農民等은 重要顧客인 日本市場을 喪失하고 이때문에 政府의 地位도 자못 苦境이던바 二十七日 村井시드니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到達하야온 報告에 依하면 濠洲政府는 九月의 新毛出廻期를 압두고 마침내交渉再開를 提唱하게 되엿슴으로 斷絕中인 日濠通商은 三個月만에 來二十八日부터 再開하기로 決定하얏다

卽 가례트關稅條約相은 二十四日附公文을 村井總領事에게 보내고 日本外務省代表者와 會見하기를 希望하는데 濠洲側으로부터 日本政府의 希望을 聽하면 新提案이 잇스면 交涉再開에 應할 用意가 잇다고 傳하며 또 濠洲當局의 態度는 日本政府의意向이잇슴으로 이에依하면 그러나 兩國政府가 直接 東京 캔버라에서 交涉을 進行하거나 는 事實上 困難하므로 實際的方法으로 代表者가 濠洲에서 個人的折衝을 進行하는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濠洲政府는 交涉을 가장 友好的精神에 依하야 또 雙方이 滿足한 解決을 期待하고 何時든지 交涉再開의 用意가 잇는것을 傳達한다 濠洲政府는 再開와 함께 日本政府의 希望에 依하야 具體案을 提出할터이므로 日本側도 村井總領事에게 對하야 具體案을 提出하기를 希望한다 交涉再開를 提唱하엿다 이에 對하야 二十五日 公文으로써 濠洲側의 提議를 日本政府에 傳達하겟다 日本政府에 傳達하면 日本側으로부터도 어떠한 提案이 잇서될 것이라고 期待하고잇는데 爲先 濠洲가提出한 提案에 充分 考慮를 加하야 商議할것을 言明한다 라고 通告한 意圖를 表明하고 二十八日 第一回交涉을 行하기로 되엿다

【雪梨二十六日發同盟】日濠通商交涉은 濠洲政府가 日本의 通商擁護法發動에 對하야 다시 輸入許可制로써 報復한以來 輸入이 全然停頓된 狀態에 陷하게 되엿는데 出廻期를 目前에두고 濠洲의 國內輿論은 政府에對한 不滿의 聲이 높아 濠洲에 不利하게되엿다 政府의 態度를 變하야 交涉再開를 至急하고 村井總領事에 對하야 바이고 村井總領事도 濠洲政府의 意向에 對하야 어느程度까지 協定을 수잇게되엿슴으로 二十八日부터 캄베라에서 가례트通商條約相과 交涉한結果 再開에 對하야 約二十六日 同意를 뭇하게되엿다

白頭山探險記

白頭山水豆滿江 兩岸景致絕勝處

⑦ 徐椿

茂山一泊을 하는 동안에 隊員中第三班의 梁某君이 夜間에 急病된 탓으로 探險을 中止할수밧게 업시된 一事는 遺憾事이엇다。鄭君의 登山中止로 隊員은 一名이 줄어서 三十四名이 되엇다。

八月九日午前八時、農事洞을 向하야서의 出發直前에 잇서서 茂山의 官民有志五十餘名이 우리一行을 爲하야 祝福餞送의 盛宴을 베풀고 우리를 招待해 준 一事는 本團主催者朝鮮日報社로서나、團員一同으로서나 充分한 感謝를 드리는바다。同時에 茂山官民有志와 우리團員一行과의 사이에 서 준 本社茂山支局長洪南善氏의 勞도 이저버리지못할 일이다。

一行三十四名은 大型小型合四輛의 自動車에 分乘하고 九日午前九時에 農事洞을 向하야 出發하엿다。本社茂山支局長洪南善氏 亦是 農事洞에서의 우리一行의 嚮導를 爲하야 同伴하엿다。

茂山으로부터 農事洞에 至하는 一百八十里(七十粁)의 自動車路는 멀리 白頭山으로부터 나려오는 豆滿江의 北岸 滿洲와 그境界를 짓는 豆滿江을 沿하야 그右岸을 疾走한다。

豆滿江은 그源을 白頭山으로부터 發한 一筋의 有名한 國境의 河이다、또한 이 한줄기 시내물을 境界線으로 하야 滿洲와 朝鮮과의 國境이 갈니는點으로 보아 더한層 有名하다。

沿道兩岸의 景致、더구나 朝鮮側인 右岸의 景致는 實로 筆舌難盡의 勝景이라고밧게 다시 表現할道理가 업다。密林素生에 百花爛漫한 景勝靑山은 絕壁이 그림이오、千丈斷崖의 基底를 흐르는 豆滿江流는 구비구비 丹靑이다。게다가 떼목(筏)을 흐르고 三三五五 閑暇로히 흐르는光景은 勝景에 더 한層 風致를 加하는것이다。

이때 나는오직 詩人이 못됨을 遺憾으로 생각할뿐이엇다。

▲豆滿江

白頭山 나리는물 흐르고 흘러서다가 고무엇을 못이저서 구비구비 감돌고 있구비 아롱구비 森林에긴 表情이요 깨끗구비 샛밝구비 그러하는 자취로다 무엇때 아르새겨 자아내인 靑翠를 옛넘게 두고가는 마즈막 勝物인가

▲豆滿江流筏

외언덕이 滿洲라다 한줄기 가는물로 두나라를 그엇고나 이러밀고 저리밀어 부질업시 자주우비 나라마른 神聖조차 맷송물을 다투는가 울오언덕 노피쌋코 密林으로 울렷스니 이고장 守護神은 그래도 强햇던가

▲豆滿江流筏

豆滿江 가득하니 떼나리는 떼목들은 白頭山 이슬바며 고히자란 이깔나무 잘나내여 물에띄고 잘나내니 물에띄고 요좋은 한줄기로 흐른나무 얼마런가 저물아 달홀아니 그이슬의 모임인가 어이그리 無心하야 나무를 맙니는가

茂山서 一三三十里 갈곳에 南村이라는 相當히 큰 村里가 잇고 그村里가 山麓이 되여 가지고 멀리 甲嶺이라는 嶺을 재가 보인다。千尺斷崖 깎근듯서다 싶히 한 놉은재에 自動車道路를 만드러 노흔 까닭으로 구비구비 감돌아 羊腸九曲을 形成해잇다。

鬱蒼한 樹林으로 山을 덥고 그도 오히려 不足하다는 듯이 百花爛漫의 芳草로 빈틈업시 修飾하여 잇슴을 본다。

甲嶺의 中腹을 가면서 바로 그아래를 흐르고 잇는 豆滿江의 흐름과 東北으로 터진 滿洲側의 山野를 나려다 보는 景致는 絕景이라고할만하다。이 조흔 景致는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嘉山이라도 읊키고 십헛스나、이 곳은 國境地帶、놉흔데서 鳥瞰하는 地形의 撮影은 軍部의 嚴禁하는바라、할수업시 寫眞박키기를 그만두엇다。

▲甲嶺

하늘닷 甲嶺재에 닷는旅客 머므른다 九曲手腸 오른길이 구비구비 다보인다 千丈길 斷厓미헤

甲嶺을 넘어서 다시 十餘里를 나려가면 山이 盡하고 큰 들판이 잇고 이 들판에는 큰 물이 맑고 이 들판을 흐르는 물은 延面水다。이 延面水는 相當히 큰 溪川으로서 바로 보이는 압해서 豆滿江水와 合하엿다。

延面水에 노흰 다리를 건너 左右勝景을 바라보면서 豆滿江을 오른便으로 끼고 다시 五十餘里를 가면 赤峯, 豆滿江에 注入하기 爲하야 朝鮮側으로부터 흐르는 西頭水라는 큰 溪川이 잇는데 有名한 三長面의 面所在地인 三長에 이르러 國境守備隊까지 잇는 三長은 바로 西頭水를 안고 잇다。

三長은 戶數約三百戶로서 茂山以西에 잇서서는 이곳이 第一繁華한 곳이다。

우리一行의 三長到着은 午後一時頃인데 一行은 여기를 點心먹는 곳으로 定하고、그동안 李相昊君과 나와는 今番探險隊員으로 三長警察署長志村昇彥氏를 차저 守備隊에 가서 警備隊六百를 비롯한 隊의 援助를 求하고、나여、三長에 ...

(寫眞은豆滿江의 景致와떼목(筏)

八面鋒

◇英米兩國의軍備擴張은 昨今의 일이아니다 太平洋이넓다 해도 艦船으로 덥히다 하면 이亦是殺風景。

◇西班牙의左右兩派싸움을 이웃에다두고 葡萄牙에서는 世界國家主義大會를연다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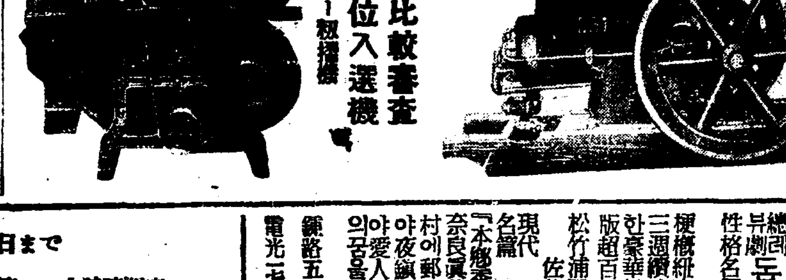
◇國家主義가 어떠한主義인지모르지만、國家主義者로서도 國際主義에依한 會合을하는것만은 奇觀。

◇嶺東、嶺南에또水害、立秋、處暑、七夕도 다지낫스니 장마도 應恥가잇스면 물러갈즈음하건만은。

◇世界最大의 浮船渠를 眞珠灣에 設置한다한은 米國에서하는일。

◇香港軍港으로擴張하고 九龍에大兵舍를築造한다한은 英國의일。

(最完全한토미타發動機)



농林省比較審査 最高優位入選機 兄弟ホーオー粉摺機

토미타發動機
(クボタ發動機同型)
高級回轉マクネット付他機와比較하기爲하야當分間大阪工場元價로提供함

ミトタ發動機・籾摺機・板野式脫穀機
ロゴリ籾摺機・マルヤボンプ
マスタ發動機・中央式精米機
木一才一籾摺機・籾摺機
木一才一籾摺機・其他各種機械

特約店募集・型錄進呈

京城府蓮建町一丁目四八
中央商工社
電話本局二三七四五 二五五二六番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九月十日◇學則要二錢切手
◇擴張大會校◇
第四七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晝夜)(後期)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電本五三三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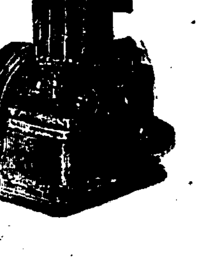
◎新學期開始九月十日(晝夜)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及編入學受驗準備(學則要二錢切手)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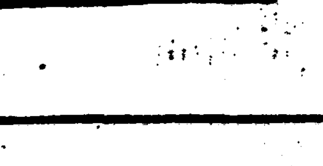
商科、工科、普通文官科
生徒補缺募集
學則要郵券二錢 京城黑石町(漢江畔明水台) 京城商工學院

죄인이니까 구원

영국『빅토리아』녀황이라면 누구나 다 잘아는 독실한 신자이엿섯다 그리고 녀황의 부친인『켄트』공작도 누구만못지 안흔 열렬한 신자이엿섯다 공의 림종시를 당하야 의사가 공을 위로하려고하야 공의 훌륭한 정치상 공적과 또는 선덕을 들어서 공의 영혼의 장래에 대하야 확실한 구원의 안전이잇슴을 말하엿다 공은 빌연히 의사의 말을 막으며 말 하기를 『내가 구원을 밧을것은 공작이 된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된 때문이라』고하야 처의 품고 잇는 복음적 신앙심을 명백히 설명한것이다

クボタの……ディーゼル機関 石油發動機
伊佛獨米英日 式ロターアー特許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産品





(型錄進呈)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0882番 4784番
本店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町二丁目 電話新町 901・902・903・904・3127
支店 東京・名古屋・神戶・大連・奉天・臺北 札幌・八幡

八月二十六日より九月一日まで
主演 バージニヤ・ブルース ロバート・テーラー 上映時間表
歡樂の女王 12・00 3・21 7・10
朝日オリムピク ニュース 第三報 1・10 3・10 4・30 8・22
東川大二郎・高杉早苗主演 自由の天地 1・21 4・40 8・35
入場料金 40錢 60錢
浪花館

八月二十九日부터三日間大公演 天下無比의名프로上映週間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二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豪級作品金盞影日本版 總出 마ー크산드릿치氏監督
性格名優후레드아스테아氏 진쟈ー로쟈스孃主演 톱프핫트(トップハット)
三週續映百萬弗收入劇場에서封切當時 一時代를劃한豪華無雙音樂과舞踊映畵의決定版超百%映畵版
松竹蒲田特作品(올짓오드版) 佐佐木康氏監督
現代名篇 舞姬の曆 『本鄕秀雄』水島光子 奈良眞養 上山草人氏共演
村에郵便局員과 都會地보다 夜鎭守에村人祭의부스래밀리하야愛人과ㅣ디都會地로靈魂한成功의꿈을
漫畵多數紹介海賊船
鐘路五丁目 電光一三三番
第一劇場

◇八月二十八日부터公演 ◇劇團大公演
◇演劇과大衆。그것의關係를解消하게됨에도 不足하다는것은 이劇團의 出現의 첫째理由다 演劇의相對가 絕對大衆을 必要로하고 大衆의가운데 演劇이아니면 이나되다는것은時代의 要求인 同時에 大衆生活의 必要的條件이다
朴英泰 作 悲活劇 上海悲歌 全二幕
出演 [文藝朴、鄭洪明、崔藝汝、金蕙玉]
時代劇 林仙生 會心力作 結婚春歌 全二幕
出演 [鄭洪明、崔浩善、金有成、文藝朴]
幕間 [獨唱、合唱、스켓취、짜스벤드]
◇全日 金有成、崔浩善 主演 喜劇 오라이 全一幕
次週…死線에서…林巨正 그리운廣梁…書亭… 酒批水善花谷…以外
漢江桃花町 電龍三三三番 桃花劇場

◇新月深川祭
原作 異龍吉 千代田勝太郞主 白石明子・松本泰輔・池鮎子・田 裵世津子助演 次週 九月二日封切 ばらならば
永樂町 電本三三三番 中央館

當る廿八日大公開 新興待望の名畵デー 大衆特別御禮奉仕料金 大人卅錢 小人廿錢
第一回午前十一時 四十分 第二回午後二時二十五分 夜之部同七時ヨリ
新興キネマ大衆超豪華版 大阪朝日新聞連載小說 原作 室生犀 監督 勝浦仙太郞
高野由美入社第一回主演 立松晃・江川なほみ・清水將夫助演
新興キネマ京都超豪華作品
音畵版聖處女

二十七日ヨリ五日間 晝夜三回入替ナシ
◀アンナカレニナ メトロ
グレタガルボ主演
◀キヤバレエの鍵穴
ジョーペーナー主演
◀あるぷす大將 LOP
伊藤薰主演
大日本每大第七報
オリムピツクニユース シネマスコープ
(南前の世界獨占)
大人五〇 學生小人三〇
P・C・L映畵と高級洋畵
若草映畵劇場 電本五三五四番

颱風一過後의風水害 電信電話不通交通杜絶

沿線各地의浸水로 京釜線運轉不能

私鐵線等도不通個所多數

이십팔일에 남조선지방의 폭풍우로 말미아마 경부본선(京釜本線)은 물론 그밧게 사철선도 모다 다음과가티 불통을 보게되여서 남조선지방의 교통은 총정지되고 말엇다. 따라서 부산—대구(釜山大邱)사이는 전신전화가 모다 통치안하서 그밧게 자세한 상황을 알길이 업다.

【京釜線】

1……물금—원동(勿禁—院洞)사이 부산기점 삼십사키로 오백미돌부터 가튼 육백오십미돌에 이르기까지 두어군데의 둑이 허무러저서 렬차운전을 못하고 잇는데 이십팔일 부산을 오후 여덟시에 떠난 제삼렬차부터는 물금서 되돌려 도라와가지고 대구(大邱)서부터 특발을 냇스나 통신 관계가 끈허저서 그후자세한것을 알길이업다.

2……서울을 오전열시 오십분에 떠난 제육렬차는 원동역에서 주춤하고잇고.

3……가튼날 오후두시 오분에 서울을떠난 제팔렬차는 삼랑진(三浪津)에서 머물러잇고

4……도가튼날 오후세시 서울을 떠난「노조미」호 특급렬차도 밀양(密陽)서 도가도 못하고 서잇는중이다.

5……삼랑진역에는 부근주민들이 피난해몰려와서 매우 혼잡을 이루고잇는데 구원렬차를 보내려고하나 풍속(風速)이 이십「미돌」이나되는 모진바람과 억척가티 퍼붓는 비때문에 위험할뜻해서 운전을못하고잇서 이십팔일오후령시사십분 그지방의 체신국선 전신, 전화가 모다 불통되여서 자세한것을 알길이업고

6……대구—지천(枝川)사이 부산기점 이백이십팔키로부근 황간천(黃澗川)의 다리가 침침당케 침수가되여 오후열한시 오십오분 렬차가통치못하게되여잇섯스나 이십팔일오전여섯시에 이르러 겨우 개통을 보게되는데 이와동시 영동정(永同町)도 침수가되여서 이십팔일오전령시사십오분 대전(大田)서 복구시킬 렬차를출동한 장으로 보내고

7……추풍령—황간사이 부산기점 이백이십칠키로 구백미돌부근에도 철로바탕이 떠나려가고

8……심천(深川)—영동사이의 백육십칠키로 백사십미돌 지점되는 심천교(深川橋)도로에제 여서운전을 할수업섯스나 이십팔일오전일곱시반에야 복구되고

9……조치원—문관(鳥致院)사이 부산기점 삼백십팔「키로」백「미돌」사이에 있는 독도 오십팔일오전열한시반에야 복구되고

【慶全北部線】

1……김천—유곡(金泉)(?)사이 삼랑진기점 여덟키로부터 열키로까지 사이의 의「미돌」이나 중수되여잇다. 그곳에 그곳 미호천(美湖川)이 두 흘러가 천천히 다니는중인 사이 려수기점 팔십오키로 오백미돌부근의 모래 나려서 꼿 복구되엿는데 그사이에잇는안대 (?) 되엿고 5……려수—순천(順天)사이의 밤미돌이 허무러저 나럿고 철로둑도 이십미돌이 불통되여 모다 철도가 불통되엿다.

【全羅線】

1……전주—남원(全州—南原)사이 리리(裡里)기점 삼십오키로 사이 려수(麗水)기점 백이십미돌부근은 산(?)이 허무러저서 나렷스나 2……오류—오수(五柳—獒樹)사이 리리기점 칠십칠키로 흙이 산에서 허무러저 나려서 선로를 파무더바럿스나 곳 복구되엿고

【慶全西部線】

1……송정리—나주 2……광주—송정(?)사이 칠미돌 사이도 불통되엿고 3……가튼 광주—운암(雲岩)사이도 독이 허무러저서 불통 4……동랑—보성(寶城—?)사이도 불통

【東海北部線】

1……삼천—남혜(?)사이 사이안변(安邊)기점구십키로 백「미돌」부근에서부터 불통되엿고 2……고저—송전(庫底—松田)사이도 불통되엿고 3……흡곡—대천(歙谷—?)사이도 역시모다 불통되엿다

【東海南部線】 한바탕이 불어서 이백사십 이백이삼미돌의 복구에는 위험하여 운전을 못하엿다

四百餘乘客 進退維谷

【鳥致院에서(釜山行)】 사이의 전보와 전신(官報)이외에는 수리하지안키로 제한되엿스나 복구됨에 따라 모다영상시와가티 하리라고잇다한다

【仁川(?)】 이십팔일 오후여덟시 풍천(豐川)으로가는 적 차는 원동(院洞)역 못미처(三浪津)에서 폭우로 멈추고 사십되는지점에서 곡 괴정삼키로 사십되는지점에서 통강의 증수로 선로가 절궤되고 기시작하엿슴으로 위험하야 통과치못하고 그대로도라가서 물금역에서 머물러잇는중이다 폭풍우때문에 언제개통될지 아직 가망이업서 사백여명승객은 불안에싸혀잇다 지금도 폭풍우는 계속중으로 락동강의물이 각각 증수되어 물금역에서 울부수리 공사를하고잇스나 아직 언제개통될지 알수업는현상이다 【警界著報】

不通된電信電話 大部分은復舊로開通

이십팔일밤이래의 폭풍우로 말미아마 경성 부산(釜山)사이와경성, 전주(全州)사이와 경성대판(大阪)동경(東京)사이와 경성신의주(新義州)사이와의 각전신전화선이 고장이 생겨 통하지 못하엿든바 오후 세시현재로 다음과가티 복구되엿다

▲불통중이든 경성, 신의주방면사이의 전화선은복구되엿스며 ▲경성 부산사이의 전신(電信)은 개통되엿스나 전화는불통이며 ▲경성 대판 동경등 일본내지각지의 사이의 전신은 통하엿스나 전화는 그냥 불통중이며 ▲불통중이든 경성 전주(全州)사이의 전신도 복구되엿다 그러고 전신선고장으로 말미암아 일시는 지금전보와 신문

▲江陵四 ▲平壤一五 ▲二 元山一〇 ▲新義州一 ▲城 一 ▲淸一〇

颱風은南中部貫通 天候는漸次回復 各地의被害가莫大

남조선해안에 통과중이든 태풍(颱風)은 마침내 이십칠일오후구시경에 전남려수(麗水)지방에 침범 사십(七三〇)미리의 심도(深度)를가지고 상륙하야 북북동(北北東)의 방향으로 진행한것이 밤 섭이시경에는 대전(大田)부근에 와닷다가 이십팔일아침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 정평부근에 잇슬모양인데 이 태풍의 습래로 남조선일대는 무서운 폭풍을이르켜 목포(木浦)가튼곳은 풍속(風速)삼십미돌에까지 탈하엿다 기여는

淸州 一九米、 大邱 一四米、 全州 八米

등의 무서운바람이 잇서 각지에 피해가 막대한모양이다

【京城測候所員談】 태풍은 일본해로 빠지고 이십팔일 아침 남조선계방은 개이엇다 점차로날이든다

강하며 日本內地는 날세가 맑다 明日부터는日氣가조와진다

豫報 京城地方 오늘밤은西風이불며 개여다흐렷다 한다 明日도그러하다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二度二
同 最低	一九度六
今日最低	一六度八
今日正午	二一度九

各地雨量

(廿八日午前六時現在)

▲濟州島四〇미리 ▲釜山三五 ▲木浦一五〇 ▲大邱一二〇 ▲京城九 ▲全州八五 ▲仁川八五

漢江水位(午後三時現在)

人道橋 八米八五、旭川 一〇米三〇、纛島 九米六〇、廣壯 九米六二(每時間〇、一〇米增水中)

纛島方面에또水禍 一千二百戶浸水

(二十八日正午現在) 人道橋水位八米六十五

漢江沿岸嚴戒中

이십칠일밤부터나리는폭우로 말미암아 경기도(京畿道)내 각처에 피해가만타 이십팔일 오전여덟시까지 판명된 수해상황은 룡산서(龍山署)관내 마루턱까지친수된가옥 일백팔십오 마루밋까지친수된 가옥이 일백칠십삼호 둑담이 문허진곳이 한곳잇다. 독도(纛島)방면은 마루밋까지침수된가옥이 일천이백호이다. 화천정(和泉町)방면에 집문허진것이하나잇다 한강(漢江)의증수상황은 인도교정오현재 수위(水位)는 여덜메돌륙십오, 옥천(旭川)십메돌칠 상류지방(上流地方)은 상금계속하야 비가 나린다 가평(加平), 려주(驪州)지방은 오전세시부터 강작히 증수하고잇슴으로 이십팔일오후여섯시까지는 인도교(人道橋)옥천(旭川)방면도 상당히 증수할모양이다 그럼으로 경찰관, 수방단은총출동하야 제방경계에노력중이다

龍山方面

이번에 거듭엄습한 폭풍우로말미아마 룡산서(龍山署)관내의 침수가옥과 그밧게 피해상황은 이십팔일 오전일곱시까지 다음과 가티판명되엿다

	床上	床下	屋倉	田	畓
元町三丁目	二	—	—	—	—
元町四丁目	吾	哭	—	五	—
桃花町	八	—	—	—	—
麻浦町	三	八	—	—	—
山手町	六	七	—	—	—
漢南町	五	七	—	—	—
金湖町	二	三	—	—	—
普光町	二	一	—	—	—
玉水町	三	二	—	—	—
東氷庫町	四	三	—	二	—
西氷庫町	二	四	—	三	田二百坪 二方米
纛城町	一	—	—	—	田八百六十坪 十方米
大興町	—	—	—	—	—
土亭町	五	七	—	—	田一反
龍江亭	五	四	—	—	田百二反
倉前町	六	二	—	—	畓六反
新井町	八	〇	—	—	田七反
淸水町	二	三	—	—	田三反
新水溢町	三	一	—	—	—
賀中町	六	八	—	—	田二町
上水溢町	四	六	—	—	畓一町
漢江橋	—	—	—	—	田十町

計 一五九戶 一七戶 一二戶 三百六十九戶

鍾路署管內

이십칠일밤새도록 내려부은비바람으로인하야 시내에도 전선(電線)이끈허지고 가옥석벽이문허지는등 그피해가만헛는데 이십팔일시내종로서에 보고되여들어온 그관내 피해상황은 아래와갓다

▲浸水家屋(床下)二六戶 ▲半壞家屋一戶 ▲樹木折倒一七株 ▲看板倒壞三三件 ▲石垣崩壞一件 ▲土塀及양철벽倒壞九件 ▲電話線切斷三件 ▲煙突倒壞一件

天氣豫報

槪況 猛烈한颱風은 二十七日夜 全南麗水附近으로부터上陸하야 大田 忠州附近을 지나 江陵을거처 日本海로 들어갓다 이때문에 中南部朝鮮은 風雨가 甚하야南朝鮮에는 雨量百미리를 넘은곳이만타 北滿洲는 개이고 南滿洲와北東國境方面은 흐려며 其外는비가오다 朝鮮海峽에도 風雨가

關釜連絡船缺航

【釜山電話同盟】 태풍습래를넘려하고잇든 부산지방의천후는 이십칠일저녁부터 과연폭풍우가일기시작하야 해상은 파도가거칠어젓다

이십칠일오후여덟시 부산측후소의관측을보면 태풍은 제주도를거처서 차츰가차워오고잇는데 중심시도(中心示度)는 칠백이십미리로 해상풍속(海上風速)은 이십미돌내지 이십오미돌을보하고잇고 풍우는더욱강렬해지는모양임으로 오후십일시반에출항하는 관부련락선은 드듸어결항케되고 부산항은 다수한선박이피란하고잇다

氷亂의 上往十里와 西纛島……

家屋倒壞三百戶 浸水千七百戶 慶南死傷四十餘名

【釜山支局特電】 이십칠일오후여섯시부터 남조선일대에 습래하야 점점풍세는 강해저서 태풍이 이십팔일오전한시경이 제일심하엿다 이십륙일부터 계속하야내리는비는 폭풍우로변하야 가옥의도괴 친수 도로결 괴등피해가속출하고 도사상자도 상당히 잇슬모양이나 전신전화가 통하지못하는관계로 피해상황은상세치안타 이십팔일오전열한시까지 경남도내의판명되것은 죽은사람이 여덜명, 부상자가 삼십육명

全南의水害 浸水九百戶

【光州支局特電】 이십칠일오후부터 습래한 폭풍우는 이십팔일새벽세시에 이르러 머젓는데 우량은 일백이십미리 내지일백륙십오미리인대영산강(榮山江)의수위는 칠미돌십(七米一〇)에달하야 피해는 사망자삼명행방불명 가옥의 류실도괴가 각삼호 침수구백호이다 또 함평(咸平) 학교(鶴橋)간의궤도는 이십칠일오후두시부터 불통중이고 도내의 자동차 교통은 거이 불통중이

綾州地方水害 浸水百餘戶

【綾州支局特電】 전남화순군릉주 赤壁江氾濫 세한것은 알수업다

(和順郡綾州)지방에는 이십칠일부터 몹시쏘다지는 폭풍우로말미암아 적벽강(赤壁江)의 물이범람하야 이십칠일오후 아옵시쯤에 릉주시내는 돌연수국화 하야 약백호가 침수되엿다 폭풍우가 심한데다가 전등이전부 꺼저서 시민은물과 어둠에싸혀 공포의 하로밤을 새엿다 춘양(春陽)한천(寒泉)면방면에도 침수가옥과 류실가옥이 만흘모양이나 아직자세한것은 알수업다

長項邑에颱風禍 死亡者가四十名

【長項支局特電】 이십칠일 오후두시부터 폭풍과폭우와함께 습해와서 가튼여덟시쯤되여서는 장항읍내가 몽땅물나라로 화해 버리고말엇다 이십팔일 오전아홉시까지 발견되죽은사람만 사십명이넘고 집떠나간수가 열세집으로 그밧게농작물의 피해는 그수효를 헤일수업다

慶北管內의風水害 主要邑은停電 金泉邑은折半浸水

【大邱支局特電】 경계중의폭풍우는 이십칠일 오후일곱시반부터경상북도를 습격하야 이십팔일오전령시부터 한시까지 사이에가 전령이 끈허저서도 내외의 전신전화가 불통되고대구부내를비롯하야 선산(善山)、김천(金泉)과 영천(永川)사이와 경주(慶州)와 포항(浦項)사이는 모다 전등이정전되여 암흑세게로화하엿다 김천읍내의 제방은 일백오십미돌이나 터저서 읍내의반분이상인 일천오백호가 침수되며 죽은사람이 두명이나된다 가옥도궤도 상당히 만흔듯하다 고령(高靈)읍내의 제방이터저서 가옥전부가침수되고 또상주(尙州)와관(倭館)에도 제방이 터저서 침수되여잇다 각지리재민들은 그곳학교, 군청, 경찰서등에 수용하고잇는데 상세한것은 전화불통으로 알수업스나고 피해가 막심한것갓다 락동강의 수위는 오전여덜시 팔미돌 칠십으로 증수중이다

어린이의선약 小兒 肝氣散 京城府阿峴 本舖 普生藥房

農作物은全滅 電信電話不通

【金堤支局特電】 김제(金堤)지방에는 이십칠일부터 폭우가나리기시작하엿는데 이십칠일밤에는 폭풍까지겸하야 전신전화가 불통이되엿스며 전등선이 끈허저서 정거장아픈 일시암흑세계가 되엿섯다 그리고 폭풍우로인하야 초가집과 상점간판이 날려가며 수목이 부러지는등 대소란을 이르키는동시에 각에잇는 벼는전면상태에 빠젓다 이십팔일 오전두시경에 발수은잣스나 비는아직도 계속하고잇서이십이 소란하다

工務課長現場急行

이번 남조선지방의 수해와함께 각선철로가 모다 불통이되여기때문에 철도국청수(淸水)공무과장은 조사지휘하기위하여 이십팔일오후한시 영업, 경리각개원을테리고 김천(金泉)으로 급행하다

漁船發動船沈沒 全州府內는또水亂

完州郡에서는二名이死傷

全北管內의水害狀況

【全州支局特電】 이십칠일밤부터 전주지방에서는 시속이십오키로질 백삼십사미리의 태풍과함께 폭우가맹렬히 내려 밤에 이르러는 소방경찰총동원으로 경계에 당하엿는데 전주천(全州川)부근에잇는 주민들은 지난번에 놀란가슴이 다시모다 노동곳으로 피난을하엿고 김제군내에는 전궤가옥이 이십오호 반궤가옥이 삼십삼호 군내일원은 전신전화불통이 되엿고 금제와 전신(?)(群山)서는 자동차가 불통되고군산(群山)서는 어선두척이 파궤되고 한척은 침몰되엿스며 전북도로국공사창소 발동선 한척이리(完州郡草浦面松田里)오오등(吳五同)(?)과 오(吳)(?)(一)은 익사 또는 중상을 입엇다

江原道一帶 人畜被害多大 流失倒壞家屋多數

電信電話不通으로詳細不明

【二十八日正午警務局着電】 이십팔일 이래의 폭풍우는 강원도일대를 다시 습래하야 동해안 각군과 춘천(春川) 린제(麟蹄) 양구(楊口) 평창(平昌) 회천(華川)각군내에 인축의 피해가옥의 류실 도괴 기타의 피해가 막대한모양인데 경비전화가 불통하며 린제와 평창은전선의장해로 말미암아 일반전화도 불통중이다 현재판명된 피해상황을 보면 다음과가다

一、춘천군신북면(新北面)에 친수가옥삼호가잇다

一、양양(襄陽)군에 행방불명자 삼명 도괴가옥 구호기타피해도만타

一、린제군린제읍과 북면(北面)에는친수가옥이 다수이나 전신전화가 불통중이다

一、강릉(江陵)군강릉읍내는배수(排水)가불통하야 과반수는친수하여피해가만타

一、홍천(洪川)군내는 강우량이 삼백이십이밀리 『미리』나되는데이 십칠일밤중까지 계속하는동시에 맹렬한태풍이 계속하야 발동에는 전신이끈허저 약한시간동안이나 전시가는암흑화되고 시내각처에 큰나무란나무는 전부너머지고 상점간판은 모다이리저리날리고 청주정에잇는 전고무공장의 연돌이파괴되여 그엽헤잇든 박영례(朴榮禮)의집이 문허지고 도청압헤잇는 가로수(街路樹)는 전부넘어저 민가의도괴도 불소한모양인데 금번의호우와 폭풍우로년처음보는 폭풍우로 일반작물의 피해도상당히클모양이라고한다

浸水家屋千戶 大邱府內水害

【大邱支局特電】 작이십칠일부터의 폭풍우로 인하야 대구부내외의 친수가옥 구백사십팔호、도괴가옥 륙십팔호에 달하는데 폭풍우로 인한 손해액이 팔천사백십오원과 가재손해 오천사백칠십원이다. 그리고 부내의 사자네명, 부상자일명, 행방불명자 이명에 달한다.

가옥피해는 도궤가 삼백오호, 상상(床上)친수가 오백오십호、상하친수가 일천이백호 도로붕궤가 십칠개소 제방이백호 친수가옥 선박파손이 십구건 등이다 이외에 경부선 구포(龜浦)삼랑진(三浪津)간은 사개소나 선로가파손되고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과 경전선(慶全線)도 전부불통되야 부산에는 려객과화물이 가득하다

철도당국에서 수리에방금지이 구조하고잇다 반 부산을떠나는 차정한(?) 민은 이십칠일오후일곱시 구호(救護)에서 구조하여갓다 이십팔일아침까지 그박게 재 구포는 폭하여 상황을 되어 이상의 도는 상세치안호나 모다 피해수 위를 물피한 상태이다 이십팔일 일오전세시부터 날세는 개이 여 말거개엇는데 현재 류실가옥 및 피해 만은

林ゴアルヂン 신기하게도잘듯는 임질에는 大阪東區 大同藥房

江陵地方家屋 千五百戶浸水

【江陵支局特電】 강원도강릉(江陵)지방에는 이 삼일전부터 호우가 쏘다저서 이십칠일 오후두시부터는 드듸어 대정정(大正町) 옥정(玉井) 금학정(錦鶴町)일대에는 다수가 침수되여 남대천(南大川)의 수위는 사메돌에 달하야 강릉읍의 유일의 생명선인 제방은 결궤되여 흘러가 게되엿고 제재민의 대부분은 남학교와 소학교에 피난하고 읍은 피해도 상당히 만흘모양이다 그리고 강릉자전거주식회사 창고에 잇든 「카바이트」가 폭발하야 화재가 일어나서 읍내는 방금 혼란 상태에 잇다 【警界著報】

淸州에暴風雨 市內倒木櫛比

【淸州支局特電】 청주지방에서는 이십칠일부터 나리는 호우가 이십칠일밤중까지 계속하는동시에 맹렬한태풍이 계속하야 발동에는 전신이끈허저 약한시간동안이나 시내는 암흑화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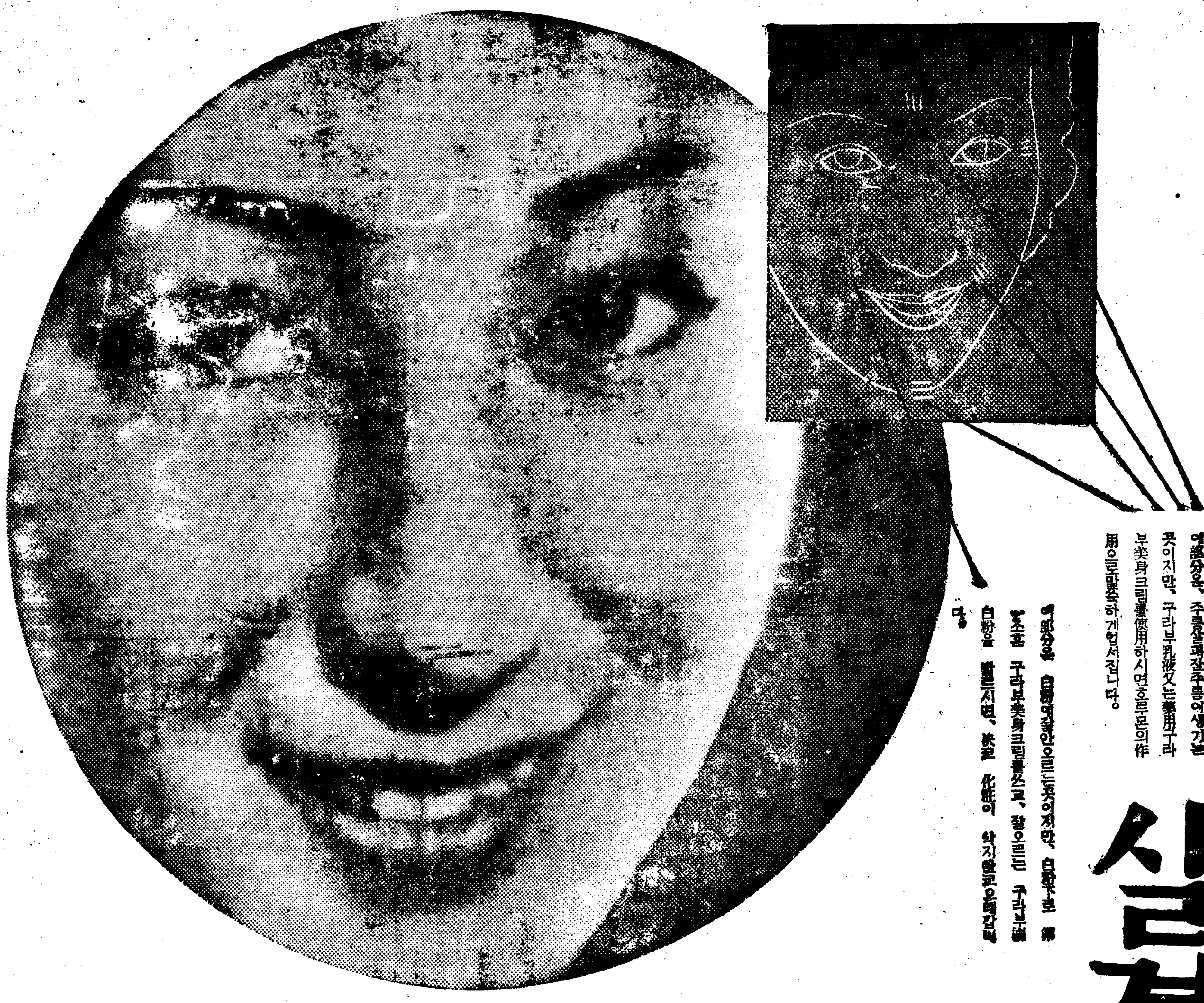
綜合女性호르몬含有　最新製造

호루몬의 更少效果로 大評判인

クラブ美身クリーム

(구라부美身크림)

살결의 滋養이되고 皮膚를 清淨美化한다



이部分은、주름살과잔주름이생기는곳이지만、구라부乳液又는藥用구라부美身크림를使用하시면호르몬의作用으로말쑥하게업서집니다。

이部分은 白粉이잘안오르는곳이지만、白粉下로 第一안조흔 구라부美身크림를쓰고、잘오르는 구라부刷白粉을 올르시면、곱고 化粧이 쉬지안코오래갑니다。

ホルモンで肌が若返る

구라부美身크림을 使用하서면 살결이젊어저서 彈力잇고 血色이조흔 살결이됩니다。效力이强한 綜合호루몬이 直接살결에서 吸收하야 榮養이되여 皮膚의細胞組織을 根本的으로 改造합니다

肌の殺菌保護をもする

구라부美身크림은 다시 皮膚美養料數種을 配合하엿스므로 벗쩌름겨케름을 防止하야 아름답고 健康한살결이됩니다 또皮膚의殺菌淸淨作用을하야 죽은깨、여드름、거미等을 除去하야 살결을保護합니다

白粉がよくつき永持する

구라부美身크림을 白粉下로 使用하면 特히粉의 구라부刷白粉이잘먹고 오래자서 여름에도 終日化粧이 밀리지안습니다 처음에구라부乳液을 使用하시면 살결을 淸淨하게整齊합니다

さらくしてベトつかない

구라부美身크림은 바른後에 끈적어리지안코 面刀後에도조슴니다。特히 그香氣의 그윽한맛! 구라부美身크림이야말로 榮養白粉下로서하로라도 업서서는아니될女性의必需品임니다。

구라부美身크림　二二전·二五전·三〇전·三三전　四〇전·五〇전·六〇전

綜合호르몬配合의藥用구라부美身크림(一圓五〇전)은特히顯著한藥理的效果가잇습니다。

호루몬은 肌膚의 滋養劑외다

젊은女性에게도健康과美容上호루몬이必要!

「女性은二十을넘으면、不知不識間에、肌膚에彈力이업서지고주름살과弛緩이생기게됩니다……이것은皮膚의細胞組織이自然히衰해가는때문이며、호르몬을 補給하야肌膚의內部에 滋養을주도록하면 언제까지나아름다운血色조흔健康한 肌膚를保有할수가잇다」……고호르몬의權威者가말슴하십니다

호르몬의補給에는 綜合한구라부美身크림이나 구라부乳液을 使用하심이 第一입니다、綜合호루몬은 從來의 女性호루몬보다 五、六倍效力이 強한卵胞호르몬을主成分으로삼어、皮膚로부터吸收되어滋養이되고皮膚의細胞組織을곳어고치는故로、젊은이의肌膚는一層潤澤하고 健康해지고、잔주름과弛緩等이잇는분은 自然히업서지고 肌膚에彈力을恢復하는것입니다 이것은 純粹한호르몬으로야비로소될수잇는것이오他一時的의藥養料로는 이러케는안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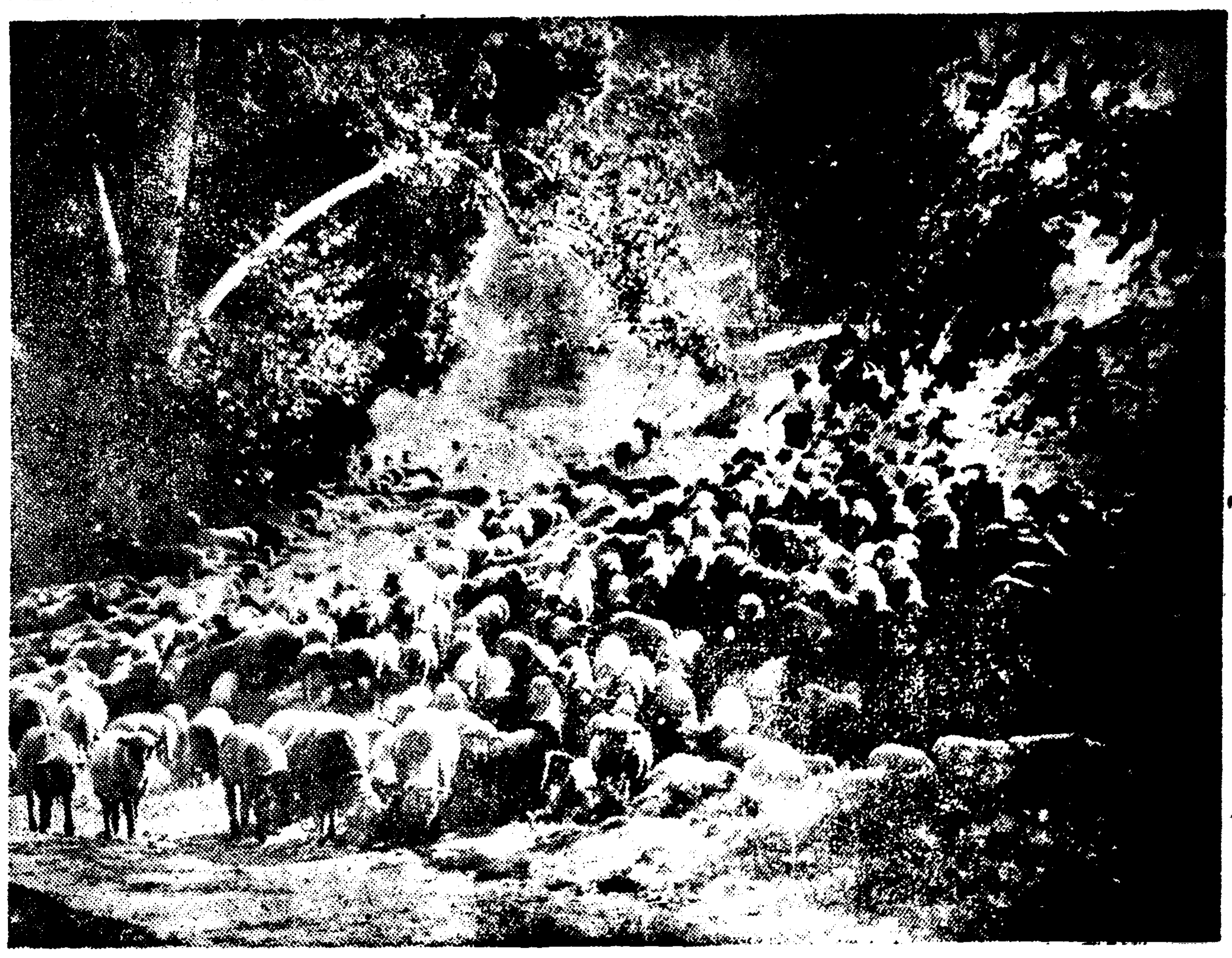
구라부乳液　五〇전 六〇전

綜合호르몬含有 藥用구라부美身크림　一圓五〇전

구라부美身크림

クラブ乳液

호루몬化粧水



—석양— —양떼를 몰고서—

리듬을 마치는게 가을철의 옷맵시

◇…명암도 보고, 옷감도 보고 그래서 의복의 음악화

어느 철엔들 옷맵시를 보지 안켓습니까만은 그중에도 봄가을의 두철이 제일이요 또 그중에도 특별히 가을이 제일입니다. 그러타고말하는 것은 한 여름을 지나노코 볏살이 얇버지고 바람스긔가 서늘하야 지면 옷맵시가 유난히도 사람의 눈을 끄는 까닭입니다. 못 생긴 얼골을 이뿌게 하거나 배신을 섬하게 할 도리가 업겟지요만은 맵시잇는 옷에도 매력이 적지 안 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차차 더위도 다 가버리고 가을이 시작되려는 이지음 빨래와 대동이로 가을옷의 준비가 바쁘신 모양이거니와 이왕 준비를 하시는 터에 참고 삼아 몃려 드릴 말슴이 업지 안습니다.

◇…리슴을마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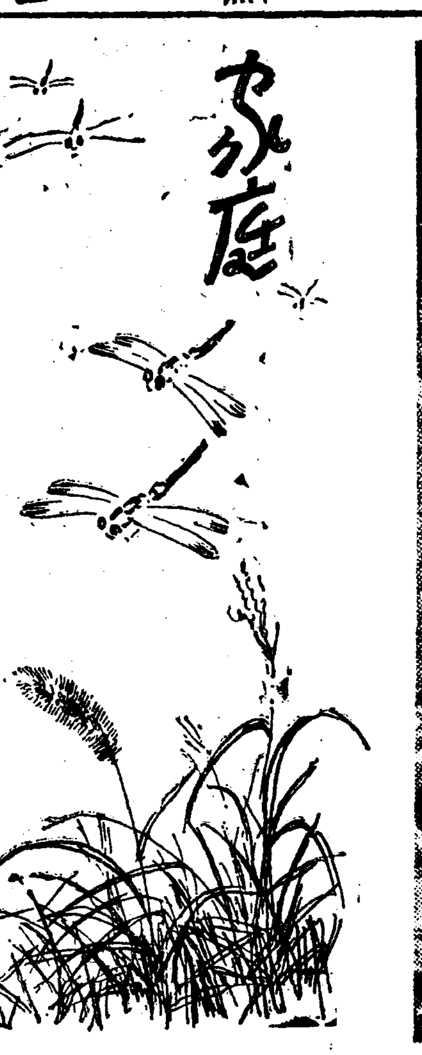
리슴이라면 흔히 음악(音樂)상으로 쓰는 말이오나 무슨 비단소리뿐이 아니요 무슨 물건의 빗갈이나 형상등에도 업는것이 아닙니다. 옷맵시에도 가장 상지상을 든다면 리슴을 마치는것이라고할수잇습니다. 어떠케해야 리슴을 마치는 것이냐고요? 글세, 무어라고 설명하야 드려야 아조알아듯기쉬울까요? 좀고상하게도 훌륭하게 옷과 얼골, 옷과 목, 옷과 옷, 옷과 장식품을 조화시키는것이라고나할까요? 귀중매등 갑비싼것만 주서입지말고 어떠한 한조자로 어울리게 하는것이라고나 할가요? 그런데 가을철은 어느 다른계절보담도 리슴에 치중해야만 됩니다. 리슴을 무시한 가을옷은 아조 천게스럽고 몰상식해 보입니다.

◇…명암을마처자

빗갈중에서 자지는 어둡고 황색은 밝고 오렌지스빗이나 초록빗은 그중간입니다. 이와가티 모든빗갈은 다각각 제대로의 명암(明暗)이 잇는데 그 명암을 마치는 것이 빗갈의 리슴을 마치는 필요조건이 되는것이람니다. 옷감을 끈을때 이 빗갈이 조흘까 저빗갈이 조흘까 그러케 생각하시는것 보담은 밝은 빗갈이 어떨까 어두운 빗갈이 어떨까 그러케 생각 하시는 것이 조켓습니다. 빗갈의 명암을 무시하야서는 별어 단조하고 쓸쓸하거나 또 치치하고 숭업거나 합니다. 대개로 밝은 빗을 한가지, 옷스감빗갈한가지 가지 어울은 빗갈한가지면 잘맛습니다. 어떠한 빗갈의 리슴을 유의하야 비교하다면 쉽게 상이자를이루는 셈입니다.

◇…옷감을마처자

옷감은 물론 천차만별로서 촉박한 것도 잇고 보드러운것도 잇고 투명한것도잇고 불투명한 것도 잇는 듯합니다. 그럼 집부터도천정도 빼도 빳빳한 뚱그리를 맛도모도 빳빳한 마치갈것과가티 살결이 아닙니까? 그와반대로 보드러운 것이라면 그역시 조흔것이 아닐가요? 그러니까 옷감도 빳빳한것과 부드러운것이 조화되어야합니다. 옷감의 성질을 마치는 것도 옷의 리슴을 마치는 필요조건이람니다. 아래우가 모다 근사한 옷감으로 되야서는 조화가 되지 안습니다. 위가 부드럽고 아래가 빳빳한것이든지 우아래가 빳빳하고 부드러운것이든지 서로 달러야만합니다.



전기스줄조심! 누전안되게

—요만것을모르면큰일—

전긔(電氣)라는것은 지금에 잇서서는 그것이 우리네의 생활에한시라도 업서서는 안되는 필수품이되고잇습니다 그러므로 여긔대하야 극히상식적인 지식이나마 갓지안흐면 안되게되엿습니다 그저 떠퍼노코 전긔는 위험한것이려니 하는것만 알어두어서는 부족한것입니다 우리네의 가정에서는 막연한전긔지식으로 말미아마 해마다 사람의목숨을 일허버리며 살림을불라서 전긔값을 떠무는수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긔대하야 지극히 간단한상식으로라도 알려두지 안흐면안될 몃가지요령을 말슴하겟습니다

전긔라는것은 까스나 수도와달러서 그장치하는 기구의 크고적은데 따러서 전긔의분량도 적게도나올수잇스며 만히 나올수도 잇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첫재 전긔기구가튼 것을사실때도 것모양만보고사서는 안됩니다

똑가튼 삼십촉전구(電球)—다마—라하더라도 정확한검사를하지못하고 만든것이잇스니 이런것은 사실상촉이상의전력을소비하는까닭에 실용상손해도 손해려니와 과열한전긔를 가져오는 전선의일부분이 그만지나치게 더워저서 루전이되며 화재를이르키는수가잇습니다

루전은 처음에는 어듸나 전긔회사에서알맛고 떨어나지안토록 배선을하며 장치하야노코간것이 그뒤 집을옴기던지 또는 무슨이동이잇서서 집에서모르면서 마음대로 배선을 뜨더곳치고 전선꺼집가튼것을 상케하야 아연판이나 까스관 전화기의근처에 가저다노흐므로 그만루전을 이르키고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을곳친다던지 남의쓰던집에 이사를할적에는 반드시전긔회사사람을 불러다가조사해본뒤에 물을켜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전긔는 추진것을가까히하면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물에적신손이마르지도안하고 그냥전긔기계를만지는것은 큰일나는일입니다 그리고 모기장이나창문가튼데 전구(다마)를매여두고자는것은 크게삽가하지안흐면안되는것입니다 전긔다리미가튼것을 쓴뒤에도 스위치를빈틈업시끼워노토록 주의하지안흐면안될것입니다

이것도사람인가

미국오롱이라는곳에 산득로버—튼·바—싱와드로뷰고 부르는열여덟살먹은 소년은 키가여덟자 다섯치나되고 체중이오십일관이며 아즉도얼마나 더자랄지 모르겟답니다 키가팔척오촌이라함은 아즉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보는큰키라하며 더욱히 키와체중을 재이기는 작년정월에 그의부친이 의사에게 다리고 가서 진찰하면서 재인것이라니 요사이는 얼마나더크고 무거운지 보기에 딱하고도무섭고 비상한생각이 드러서 이웃사람들끼리라도 키와무게를 자조못 지안흔답니다

리혼은작란?

「리혼은 심리적으로보면 어린아이작란과도 가튼것이다 리혼이미국의 명물로된것은 크게유감이다 사실오세로부터 세살되면 누구나어룬이 되는것을깨닷고 마음이까러안저 리혼을하지안허야 할터인데 한갑이갓가워와도 리혼을 꼬잡는것을보면 어린아이로바께 보이지안한다」

리혼을 반대하는 미국에서 사회사업가에드와—드·씨가요지욕웨스톤·훼스퍼—에서 우에와가튼 리혼반대연설을하야 물의를일으키고잇다합니다

중국에전해오는 장생·불로령약

「본초강목」에 적힌 놀라운 효력 그러나 과학적 해명은 머럿다

九龍蟲

한방약(漢方藥)이 신비로운 매력을가지고 잇는것은우리네가 항상 늣기는 바이지만구미문명국에서 생긴 약품의 근원이거지반 중국에서 발달한이만큼 력사가 오랜 이나라의 약품가운데는 진기한것도만흐러니와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못할 신약이잇슬것입니다 례를 드러말하면 사향(麝香)이니 우황(牛黃)웅담(熊膽)가튼 동물의내장이여러가지약의 원료가되고 란속, 태반, 부신(副腎)어린애오좀, 이러한것이 역시 약에 드는것을보면 명칭은 구식이명정 요새 우리네가말하는 「홀몬제」라고 볼수잇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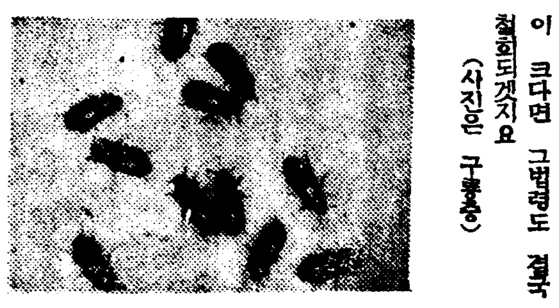
구룡충(九龍虫)이라는 낫선 벌레지가 불로장생에 령특한 효험이잇다고해서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궁정에서나 고관들이 만히 복용을 햇다는데 과연 그효력이잇고 업는것은 별문제로하고 본초강목(本草綱目)이란 책에보면 그약성에따라 여러가지 병에쓰는처방이 긔록되어잇습니다 구룡충을 양충(洋虫)이라고도하는데 이버러지를 다른약과함께 환약을지어먹는다거나 산채로 물에 띄워먹으면 몸이더워지고 혈액순환이 잘되고, 위장은물론 다른내장도 튼튼히되고 몸도 튼튼해진다고씨워잇습니다 페결핵에는 소의 골수(骨髓)와 핵도육(核桃肉)각서돈중을 잘말해가지고 거기에 구룡충일곱마리를 너지찌어서 한개에 서돈중가량되게환을지어 새벽공복시에 한개식 개무러 먹으면 아흐레 되는날에벌서 신기한효력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러케 간단한 방법으로 폐병이낫는다하니 시험해보지못한 현대사람들에게는 고지듯기지안을 말입니다

그라고 이구룡충은 사라잇는「홍환」이라고해서 로인네들의 성욕감퇴에 사상자(蛇床子)서돈쭝을 다린물에 구룡충을 산채로 일곱마리를 띄워마시는데 이러케세번만해먹으면 벌서그효력이 드러난다합니다 이러고보니 오래먹으면 먹을수록조코 장생불로할수잇다는것이지요

◇

구룡충은 반디벌 벌레가려 생겨가지고 그보다 훨신적어크게자란놈이래야 사진에 보이는것만바게 안됩니다 일본내지에서는 이상한벌려지라고해서 길르면서 연구하는 사람이 터리생긴모양입니다 만주의 영웅이든 장작림은 이구룡충을 큰 창고속에 다들래기르면서 파수병까지 세웟섯다나요, 그 사람네들이 그러케까지 이구룡충을 귀중히 여기는것을보면 그효력을 우리가전혀 의심할수업습니다 손님이왓슬때라도 고귀한분이와야 꼽부에물을 떨구고 그우에 서너마리 떠러트려준 다니까요. 엇잿든 이구룡충은 현대과학의 한수수겨끼가되어잇는것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구룡충도 「먹는달팽이」처럼 과실나무를 해하게한다고해서 얼마전에 수입금지령이나리고 마럿습니다 그러나 과수에 해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리되는것이 크다면 그법령도 결국 철회되겟지요 (사진은 구룡충)



어린애병간호

애정에—끌리기쉬운

나어갈때 주의 안하면 병을 더치게 만든다

회복긔에는 어린이들의 병이만히 발생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병에는 어룬과 달러서 부모들이 병구료를잘못하야 번번히 나흘수잇는병이라도 그르치는수가만습니다 병이중하게들면 물론입원하야서 의사의감독과 지도대로 치료하면될터이나 입원할수업는 형편이라던지 또는입원치안코도 능히나흘수잇는병은 한번 병원에서 의사의지도를바든후 가정에서치료할때엔 반드시 의사의 지시대로만하면 낫는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철업시먹고시픈 음식을 청하거나 또는병이든어린아이는 대개가 병에해로운것을먹고 시퍼하야 조르게 되는것이니 이것을 그냥 물수업서서, 부모의 자정이라 그만 달라는대로 음식을먹여서 낫기시작한 병세가 그만 악화되고 마는수가 잇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나 어룬을 물론하고 병자를구료하는 집안사람의 주의여하에 병이낫고 안낫는것이 결정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병든사람의 음식과 대변과 식욕가튼것도 참으로 조곰식먹도록하야 좌우간 먹고시퍼울고야단하는것을 넘기도록하는것이 조흡니다

또한어린아이가 병이낫지도 안흔체 문밧가레를 나고시퍼울든지 더웁다고 이불을차내던지는 수가잇는데 의사가절대로 안된다고 말하얏슬때는 절대로 내여보내던지 이불을벗기여서는 안되는것입니다 이로말미아마순조로나하가든병이 급작스리변해서 악화되는수가 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할때에는 어머니나 집안사람들이 모여안저서 자장가를부르든지 동화가튼것을 듯겨서 그순간을 참고넘기도록하는것이조흡니다

물통오래쓰는법

석유통으로만든물통이나 바게쓰가튼것은 밋바닥에 녹이쓸러서 물이새서못쓰게됩니다 이것을오래두고 속안쓸게쓰랴면 송진가루를뿌리고 불에쪼이면 송진이녹아서고르게펴집니다 송진이조곰만히잇스면 두껍게칠하면 더옥조흡니다 한번시험해보시지요

머리안빠지게하는데

다시마

다른해초도조타

가을에 머리털이 만히빠지는 사람은 지금부터 음식과 기타의섭생에 주의하지안흐면안됩니다 머리털이 빠지기시작하야 비로소 약을쓰고 음식을 주의하야도 그것은 원인이 여름섭생에 잇슴으로 늦은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마가튼 해초류를 만히먹는것이 조흡니다 다시마로서는반찬을 얼마든지 여러가지를 만들수가 잇슴으로 반찬도되고 약도되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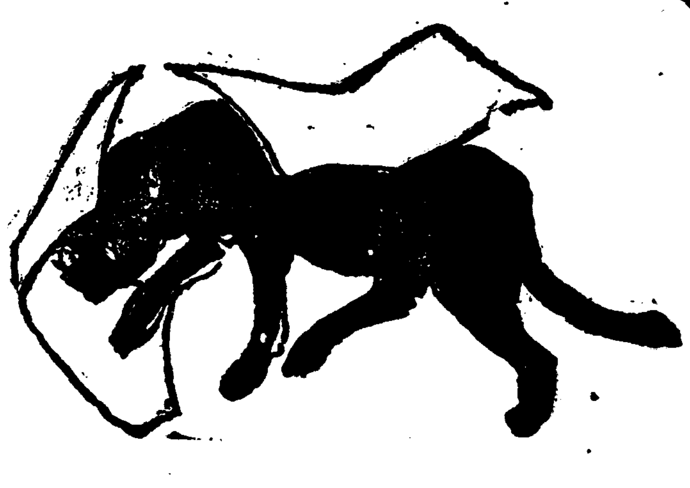
그밧게 더웁다고만하고담백한것만 먹고지나면 자연몸에여러가지 영양분이 부족하야 몸이 약해지면 결과가 털빠즈는일인만큼 주어나 백장어가튼것을 만히먹으면 조흡니다.

그다음 머리속에 모여사이어시 땀을 다게되는까닭에 모근을 허약하게만들므로 한주일에 한번식 머리털을 잘 씻슨다음 바람에 잘말려서 조흔 물기름을머리살과 털에 흠벅 바르는것입니다.

그리하야 아츰에 머리를 비슬때 량편손가락 끄트로 뚝뚝 가벼웁게 두다려여 혈액순환을 도읍는것도 조흡니다

머리털은몃개?

무엇이던지 척척잘헤아려내고 증명해내는 현대에잇서서도 사람의머리털이 몃개나되는지 아라낸사람도업고 알라고도하지안햇습니다 그러나 쉬카고의 어느호사자가 일만오천인 어른들의머리털을 헤아려보고 그결과를 다음과가티 발표햇답니다 금발머리털은 한사람에보통십사만개로부터 십오만개며 검은머리털은 십만개로부터 십일만개 그다음 빨안빗갈의머리털은 사만개로부터 오만개라합니다



도적 고양이가 찬깐에 든 생선토막을 훔처먹으랴다가 파리잡는 약을 발로디덧습니다. 끈적끈적한 파리약이 무든 조히가 발에 쩍 들러부터 안떠러 지니깐 얼른 수둥이로 떼랴고 햇지만 얼굴에까지 부터버렷습니다. 그래 한참 애를쓰다가 파리약을 몸에부친채 혼이나서 다라낫습니다. (공주사람 지윤룡)

백수십쌍의 신랑신부결혼식

살림사리에 재정은 버용을만히내지말자는 소위 생활 합리화운동의 하나로서 중국에서는 집단결혼(集團結婚)이 성해젓습니다 사진은 상해시청(上海市廳)에서 신랑신부 일백여쌍이 한테모여 한사람의주례 밋테 학생들 체조하드시 일제히 거행되엇습니다 요전황해도에 이런집단결혼이 잇서이야기 꺼리가 되엇섯지만이러케 대규모의집단결혼은아니엇습니다 (사진은 식장에 드려가는 신랑신부 들의행렬)

엇던것이류행?

가을의신사양복

빗갈의회색과다색계통

금번가을과겨울에류행할 남자양복의 〃스타일〃은 대개순연하게몸에마즈며 얼는보기에 아모무리가업서보이여야 한답니다. 억개는 작년보다도 더욱일로처저야하며 동두스롬하고 소매는 좁으며, 깃은 너무기러서는 못씀니다. 그리고 가슴잇는데는 젓연스럽히 알마즈며 조곰커도조코 압단추는 〃씽글〃이나 〃따블〃을 물론하고 두개나 세개로합니다 때에따라 덧것이며 쪽가는 쭘직하고길며 바지는 동으로부터허리에는 자연스리 알맛고엉덩이로부터 면저다리를 향하야서는 조곰넓직하고 좁이커서쿨목아웃대로 늘힐수잇도록 하고 쓰봉맛운어는 차차 적어지는편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소위류선형이라고 하는것인데 시체만으로 본것이아니라 위생에도조흐며 체재옷이갈수기지를안하며 안기가 편리한것입니다 빗갈은 작년과가티 다갈색 계통입니다 조곰 새로운 경향으로는 회색도 조흔게입니다 가옹로르트하고조곰 두터운것으로는 「우스테드」며 조곰연한것으로는 쎄도란드가전성이라고 볼수잇습니다. 그리고 아모문이 노히지안혼것이조흐나 여프로다른이로서 엇뜻보면 무지처럼보이는것이 류행합니다 될수만잇거던 흐른한 갈색으로정잔코 쭘직하게 해입는것이 조흐며, 명랑한것을골르고, 너무지나치게 지룬것은 조치못합니다

홍문에혹이생겨

問 본인은 동년삼십세된 남자인데 약이십일전에 우연히홍문바로안으로 오른편에 맛치팟리처럼 살이부어 홍둔밧그로나오며 다소압프기에 고약을발러나햇더니 동일에다시그위치에콩알만한것이생겨 압프니 무슨병인지 가정치료법을 속히하교하야주시을기바라나이다 (일고민독자)

답 보기전에 회답키어렵습니다 그러나대개는 치핵(痔核)인 것갓습니다 고약으로 한번나섯다하니 그전대로 한번더 그약을 사용하야 보십시요 만일낫지안으면 가정에서 치료하기어렵고 외과병원에 가서진찰수술을바다야할것갓습니다 (鄭世病院長 朴秉來)

림질 와

淋疾藥

淋疾患者에 엇더한藥이 第一조흔가?

이것은內務省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嚴重審査한後그品位를決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또內務省衛生試驗所에서檢査封緘한藥劑가我醫藥界의指針이되야잇슴으로

本社의淋疾藥은、政府指定醫藥界의最高權威者가選定한日本藥局方收載

그리고 內務省衛生試驗所封緘의治淋劑六劑를主藥으로하고何等副作用이업도록配劑한公認治淋劑다

淋疾患者는專賣所에迷惑치말고 곳有田도락구로申込하라

藥價 淋特製 八日分 四圓 / 別製 八日分 八十五錢 / 德用 十六日分

梅毒

本社創製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所載梅毒藥三種과 皇漢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 副作用이絶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梅毒劑로서 긔초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전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본제의내복으로 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하며 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이 점점희박하여져서 치병의목적을달할수잇다。무서운 매독을 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자용하야 고치시라。

藥價 特製(十七日分)六圓 / 別製(十七日分)八圓 / 德用(三十日分)十四圓

有田ドラッグ

有田ドラッグ專賣所々在地

京城鄕便局前 有田도락구 / 龍山漢兵營 有田도락구 / 平壤本町 有田도락구 / 釜山幸町一 有田도락구 / 群山驛前通 有田도락구 / 全州高町 有田도락구 / 光州本町三 有田도락구 / 木浦榮町二 有田도락구 / 大邱京町 有田도락구 / 馬山京町二 有田도락구 / 麗水 有田도락구 / 浦項本町 有田도락구 / 東萊二浦 有田도락구 / 鎭南浦漢里 有田도락구 / 海州南本町 有田도락구 / 新義州櫻町 有田도락구 / 元山本町二 有田도락구 / 咸興本町二 有田도락구 / 羅南生駒町 有田도락구

高價藥配劑公開

肺病藥

肋膜炎 肺炎가다루

本社에서 發表한肺病肋膜炎의全快者는어느거나左記에公開한 高價藥配劑의別製治肺劑와有田血液素를服用하면서一方으로 올바른療養으로實際에全快되도록하는것으로서住所氏名을明記하고全快後健康體가된寫眞까지 公表한것으로서正確하고또信用할수가잇다。有田別製治肺劑는歐米는勿論、我國醫藥界의最高權威者들에게서選定된日本藥局方治肺劑와多數高價藥等二十三種의配合에依하야 綜合的醫治効能을 表顯할여러가지症狀을輕快케하는公認治肺劑이다

現今은當局의取締가甚히嚴重함으로虛僞又는誇大廣告는絶對的으로不許하니左記의高價藥配劑公開가튼것은秋毫도虛僞는안이다

(時價一키로瓦의單價)

結核治療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五種藥綜合配劑 一種 七百四十圓 外一種藥配合

鎭咳祛痰劑 一種 二百三十圓 二種 三十一圓

結核解熱劑

强胃强腸劑 醫藥學界最高權威者選定 政府制定日本藥局方收載 四種藥綜合配劑

食慾促進劑 一種 二百六十圓 外一種藥配合

鎭靜劑 一種 五十二圓

消化劑 一種 四十七圓 外一種藥配合

酵母劑 一種 五圓五十錢

滋養强化劑 一種 五十二圓

호르몬劑 一種 千六百圓 二種 千二百圓

本社의藥劑가肺病과 肋膜炎에如何한有効한가를느구라도곳알게되는것은食慾이增進되고排便의調整體重의增加結核熱의解熱기침의緩和痰의減退等으로이것은무엇보다도回復期에들엇다는證據임으로放心말고養生하지안흐면안된다 連服하야藥効가나타나기始作하면 體重이날마다날마다增加됨으로 놀랄어보시라。

特製治肺劑(八日分)十九 / 德用治肺劑(八日分)十五 / 別製治肺劑(八日分)二十八 / 德用(十六日分)二十八

有田血液素 一圓

續夏涛筆

文廟從祀의是非 【廿二】

湖岩

文廟配享은 儒賢을 崇尙하는 李朝에 잇서 最高榮譽로알엇다.

朱前文敎에 功勞잇는이로 死後에 [illegible] 廟庭이나 文廟에 配享하게되는데 廟庭보담 [illegible] 廟庭보담 文廟가 더[illegible]것은말할것도 업다.

文廟에配享된 朝鮮名賢이를드면 十八人으로 新羅의 薛弘儒, 崔孤雲과 高麗의 安晦軒, 鄭圃隱과 이네분밧게 그餘十四人은 모다 李朝의어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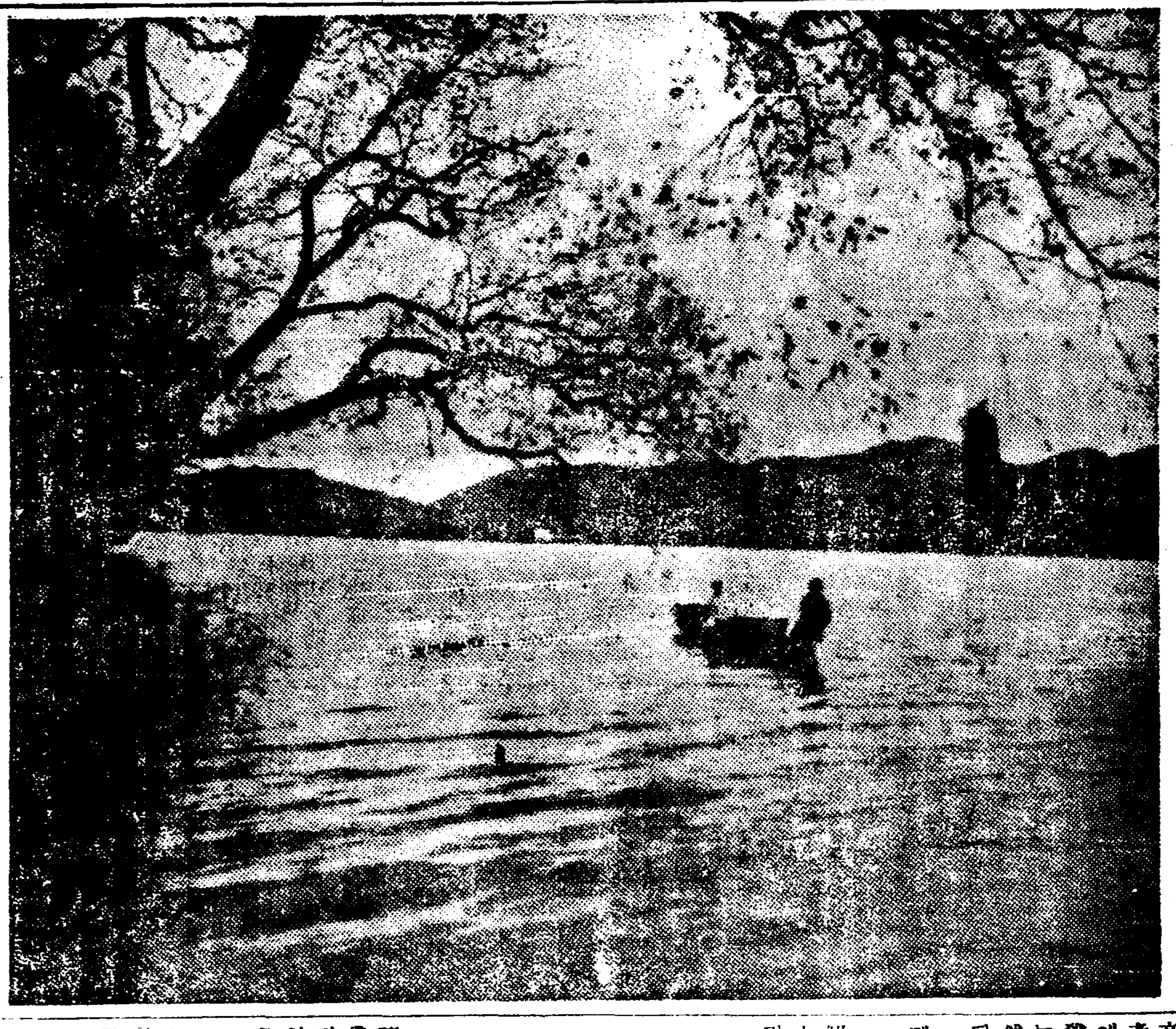
그러나 安晦軒까지는 발서 前朝때붓허 이미從祀하게되엇거니와 李朝에 드러와서는 中宗때鄭圃隱從祀를 最始로하야 光海때 五賢從祀와 肅宗때 栗谷 牛溪와 沙溪의從祀와 英祖때尤菴, 同春, 및宋玄石의從祀와 正祖때 河西從祀와 高宗때重峰 愼獨齋의 從祀를 最後로하엿다.

지금從祀에 이르게된 그理由를보건대 李朝에선 大體로程朱學者를 標準한것가트나 반드시 모다 그러타고 할수도 업다. 그러나 李朝는 明言하기가 좀거북하므로 高麗朝에 올라가 붉진대 顯宗때 最初로 從祀하게된 崔孤雲으로말하면 王氏의興起를 [illegible]했다는데잇스며 그다음一年뒤에 다시 薛弘儒를 從祀하게된理由로말하면 方言으로九經을 [illegible]하야 後生을 가르친敎育上功勞에 잇섯다. 그리고 忠肅王때 從祀하게된 安晦軒은 程朱學을 半島에輸入한 功勞者이라할 異論이 업거니와 薛弘儒 崔孤雲가튼은 程朱以前의人物임으로 程朱學과는 아주關係가 업섯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文廟에從祀하게됨은 다름이아니라 世道에功績이 잇는때문이다. 이것은 勿論半島에 程朱學이 存在하기以前의 일이니까 그러타고 할지나 程朱學이 存在한以後에도 文廟에 從祀하는이가 반드시 모다純粹한 程朱學者에만 限한것이아니다.

一例를 들면 程朱學者로는 鄭圃隱보담 金寒暄堂보담 權陽村이 도리어 압서지만 陽村을 配享하지아니하고 圃隱과 寒暄堂을 配享하게됨은 純粹히 程朱學만을 [illegible]하지아니한 明證이다.

그러타면 高麗때로 配享할 人物이 적지아니하니 九齋를 設하야 諸生을 敎育하든 [illegible] 文憲公崔冲과 文忠公李齊賢, 文忠公鄭夢周[illegible] 李朝文[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文章論

現役評論家의群像
—文章으로본그들의印象—

② 朴英熙

金晉燮氏

그는 「에세이스트」로서 朝鮮의唯一한 存在라고 생각한다. 近間에 新聞雜誌에서 보면 隨筆이라것이 만히 發表되다. 그러나 筆者가 隨筆이라면 創作보다 아조 下位에 잇는듯이 생각하고 文士의

餘技로서 하잘것업는것처럼, 內容도 너무도 無價値한것을 取하며 따러서 文章도 되는대로 쓰는듯한 感想을 갓게하는것이 만히잇는데, 그것은 隨筆과 雜文을混同하는 까닭이려니와, 그러한中에 氏만은 隨筆의正統을 正統的으로 밟어가는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文章은 朝鮮的이라는 形容詞를 붓처서 조흘줄로 안다. 첫재 朝鮮的文章의 特異性이란 무엇보다도 悠長한 「센텐스」의 울속임이니, 接續詞의巧妙한 使用에 잇다. 文章이 길어서 조흔것은 아니나, 그의긴 「센텐스」가운데는 哲學的 敎智와 老練한 情緖가 얼크러저서 혹은 曲線的으로 혹은 斜線的으로 움즉임이, 그內容의 適當한 文章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文章에는 直線的躍動은 勿論업다.

그러므로 그의 文章에서 맛는 印象은 먼저 文雅한듯하며 어두운듯하며, 따따한듯하나, 그의文章은 決코 難澁하지안코 노픈山脈의 「노톨」한 線과가터서 그

文雅한듯 한데서는 深奧한 맛이 나고, 어두운듯한데서는 哲學的 敎智가 빗나며 따따한듯한데서는 人生의 訓話가 들어잇섯스니, 어느때는 「미트」에머든」이나 「세네카」의 文章을읽는듯한 感도 업지아니하다.

그러므로 그의 文章은 「노타이 쉬트」의 街頭 漫筆客이 아니고 正服을 단조 하나 빼지 안코 正着하고 잇는듯한 感이 생긴다.

情緖는 [illegible]하게 움즉인다. 그러나 나가는 길은 [illegible]하다. 理智는 어둡게 비친다. 그러나그 光線은 [illegible]을 비칠수잇다. [illegible]에 드러스는때에 생기는 感想—(冷靜, 沈默, 滿喫, 憂鬱, 思索, 努力…等)이 머리속으로 건너간다. 이러한 感想을 붓잡고 얼마큼 時間을 經過하면 그의 文章은 特異한 魅力을 가지고 接近할수잇스나 그러한 時間의 經驗이 업스면이 文章은 무거운채 내여버려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할미꼿을 月桂와比해서 말하지 안는다. 그러나할미꼿이 무덤우에서 꼬치피는때는 지내가는 思索家의 발길을 멈추게하며 그의 翫愛를 밧는다. 그때에 할미꼿에서는 哲學의 敎智가 풀러나온다.

月桂花는 아름답고 香氣가 잇는까닭에 때로는 戀情의 表象으로 男女間에 주고밧지마는 한번 이저버리매 발미테서 짓밟히는일도 잇다. 내가 보는 그의 文章의 印象은 할미꼿을 어루만질때와 同一하엿다.

그의 文章은 激할때도 업고 急할때도 업스며 그러타고 하서 無制限으로 長恨하지도 안켓다. 어느때나 同一한 速度와氣分으로서 君子의 行步를 거러가는것은 그의 獨特한 文章일

純潔性의 「나이부」한 情緖는 世俗的妥協性에 보다 더 만히기우러진듯십다.

그의 文章은, 溪流를 여페 끼고 [illegible] 平坦한 草原을 밟는것처럼, 가고가도 풀이오, 듯고들어도 물소리의 沈滯과 單調가 떠도는듯 한데, 그單調라는것은 單一한 單調가 아니라 同一한것이 重復되여서 생기는 單調—疲勞한듯 시프나 이 疲勞는, 草原을 씻치는 微風처럼 곳 지내가고만다. 極히 少許의 自己 健康을 維持하게 되는 堅固한 意志가 잇다.

未備한 點이 잇슬때, 남에게 疑心을 밧게 될듯할때에, 그의 文章은 處女的 眞實性과 科學者的 證明을 가지고 論明하기에 熱中하기때문에, 論敵을 默殺하는 威嚴과, 筆陣을 모라가는 [illegible]的 武力이 업슨 必然의 事勢라고 볼수업다.

그의 文章은 理解力이 만키때문에, 가령 論戰을 펼 境遇에는 相對者의 文章理解하는 힘이 强해서 自身의 武力을 [illegible]하게 할뿐만이 아니라 自己의 論旨가 어느듯 相對者의 文章과 接近하게되는일 [illegible]

[illegible] 穩平한 基礎이 구더진文章에 어느때나 平凡한 話題에도 眞理에 비치여서 探索하려는 努力이 이文章의기교를 만든다.

그러까닭에 論議는 平凡한데도 眞理가 잇는듯하고 一見아모 興味도 업스나 咀嚼할수록 新味가 나는것이 그의文章의特色인가한다.

金煥泰氏

내가 氏의 論文을 對하기는 얼마前에 發表된 八月創作評이 두번재다. 첫재번은 數年前 朝鮮中央日報에서 氏의 初論文인 듯십흔 그것이엿는데 그때의氏의 文章은 나의 興味를 끄럿다. 健實하고 誠實한 筆致가마음에 들어서 그때도 그의 論文을 다읽엇든일이 생각난다. 그때보다는 지금의 그文章은 版圖가 널버진에 따러서 그 [illegible] 佳作이 떠돈다 할지라도 決코 表現함이 업는 文章의 健康한 狀態가 그의 文章의 性格이다. 그것은 誠心과 熱意가 가득 차서 文章 스스로가

對者의 文章과 接近하게되는 [illegible] 수업는 親和力이 생기는것도 그의 文章의 一性格이니 八月創作評序言에서 보든바와갓다. 注意기픈 觀察이 理解力의 慈悲心속에서 表現하야 보드라운 愛情과 同情의 明朗을 잇기지 안는것이 氏의 文章의 長點이오 短點이다. 그러므로 氏의文章은 論戰에 使用될것이라하기보다도 남의作品이나 思想을研究하는데에 必要한 文章이 아닌가하고 나는 생각한다.

氏의 文章은 銳利함보다도 溫和하고 保守的이며 아니라 進步的이며 排他性이 아니라 親和的 性格을 가젓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가운데도 看過할수업는 어떠한 氣分이 잇스니 그것은 어느程度의 興奮이다. 八月創作評文에서 더욱히 發見된다. 가느

不要必한 [illegible] 興奮이 文章의 [illegible]를 [illegible]할 必要가 생기게 되는데도 다. [illegible] 잇게 하므로 가다가 업지아니하다. 그의 本來의 文章이 沈着하고 明朗하고 淸明하며 順理한 가운데 侵略하야, 그眞實한것을 表現하엿스니, 勿論 攻擊이나 辯解等에는 그의 文章이 適切할는지 疑問이나, 上論한것으로 보아서 確實히 그의 文章은 前者의것이며 後者의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바이다. 그러나 그의 文章은 아프로도 無盡한 餘地가 만타고 생각되는것은, 반드시 攻擊에 適切한 文章이 될수잇다는것을 意味함이 아니라, 一般 文學評論에 잇서서 進就的 性格을 發揮할수잇다는것이다.

漢詩

「薔薇」 押香 桐岡考選

佳作之五

英陽郡石保面院里 李浩亭

剪金被樹一團黃
潤色山村處士庄
政好藏鶯難辨色
却嫌採蝶若無香
嬌紅可哂桃花媚
瓤白堪憐柳絮狂
獨點餘春爭萬綠
天然顔態景中央

海外뉴스

新聞記者의制服

制服이라면 四肢를것는 나치스, 파씨스트의 伊太利에서는 요지음 新聞記者에게도 制服을 制定, 所定의 制服을 입지안코는 新聞記者로의 公席에 出入할수 업다는것이 宣傳省에서 發表되엿다 [illegible]의 制服은

黑色 따블
黑色 레인코―트
黑色 소프트
白色 장갑
黑色 넥타이
아와 사쓰

勿論 나치스의 制服이 잇스나 이 사쓰는 使用할수잇스나 國外의 旅行으로서로 如何한 會席에라도 出入할수업다고한다.

科學

將來의兵器
—主로電氣用品에關하야— (2)

方聖熙

電氣大砲와火砲와의比較

上記 第二方式은 一九一六年(世界大戰一九一四—一九一八)에 佛國빌푸레―氏의 考案으로된 第一有望한 方式이여서 氏는銃身全長一米(約一間)의 電氣小銃을 試作하여 電壓五〇볼트下의 一二〇〇암페아의 電流를 써서 (普通電車는 五〇〇볼트 一五〇암페아) 長二七厘(約九分)重五〇그람 (約十三匁)의 彈丸을 每秒二〇〇米의 超速力으로 發射시켯다는 實驗을하엿다 이것으로 換算하면 九五〇「볼트」의 電壓下에 七百萬암페아의 電流三(이것을 動力으로 換算하면 二十萬키로와트를要함) 全長三〇米, 重七〇〇噸(約十九萬貫)의 大砲를가지고 一〇〇匹(約二十七貫)의 彈丸을 一六〇〇米의 超速度로 發射할수잇스며 能射距離는 一二〇粁(約三百里)라한다 그러나 普通火砲는 數百匹의火藥를가지고 每秒一五〇〇乃至三〇〇〇米의 超速力(到達距離는 三百里—五百里)을 어들수잇슴에 比하여 아직 未及한感이잇고 第一上述의 莫大한 電力을 戰場에서 如何한 方法으로 어들수잇는가가 問題이며 또缺點이되고잇습니다

그러나 電力大砲는 萬一電力만 어들수잇다면 無限定한 威力을보일것이요 또 發射時에 音響, 發光等이 업슴으로 發射證據現象이 敵에게알니워 지지안허서 敵에게 發覺 或은 對時距離測定을 不可能케하며 電流의加減으로 簡單히 彈丸到達距離를 調節加減할수잇다 또한問題되는 莫大한 電力의 發生方法도 如斯한 莫大電力을 要하는것이아니요, 發射瞬間만 要하는 電力임으로 여긔 解決方針이 幾在하고 잇스며 意外에速히 解決될는지도 모른다. 超速三千米만 엇는다면 實로 京城서滿洲等地에 彈丸이 達하여運搬不便한 武器, 兵士를 戰地에 보내지안코 敵을砲擊할수잇다. 一方드르면 火藥으로는 此等長距離大砲가 成功되엿다고도 傳한다

怪力線

戰爭이라는것이 元來 勝敗를 다툴때에 人馬를 殺傷하고 生活必需設置品, 建設物을 破壞하여敵을可能한限 困窮케하자는것이目的이며 이目的을 達함에잇서只今까지는火藥만이 全혀使用되며銃砲全盛時代를 이루고잇스나 今日의偏重한 科學의發達은벌서 銃砲時代를 보내고新科學을利用한新兵器를 使用될時代를 이룬것가티 想像된다.

去五月 新聞報道에依하면 伊太利말코니―侯(無電發明者)는 特殊한 電波發生裝置를 發明하엿는데 뭇소리니―首相面前에서 로마郊外某지아 [illegible]에서 實驗을한바 이것은 自動車 飛行機等의 燃料를 使用하는「엔진」을 停止시키는 能力이 잇는것이며 이實驗中 約三十分間은 「로마」市와 그外港間을 疾走하는 自動車는 모다 一時에 停止하고 運轉手가 아모리努力하여도 아모故障업시 「엔진」이 發火發動치를안는다니 이試驗이 終了된後에야 겨우發動을 하엿다고한다 當時에 「말코니―侯」은 「이發明에對하여서는 伊太利軍機의 秘密에 屬한極重大한것임으로 絕對祕密할수업다」라고 말하엿다하며 뭇소리니―首相은 「이것만잇스면 戰爭도 怯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엿다고한다

象君의心理療法

米國 조―지아州 오―거스타 市에잇는 어느曲藝團에서는 그 團中의 人氣를 一身에 모우고잇던 「아리스」孃이라는 體重四噸의 코키리가 요지음 기운을 [illegible] 그만 憂鬱해젓다 [illegible] 肺炎이라고 診斷하얏는데 어떤 心理學者의 말은 同孃의病은 肺炎이 아니라 心理療法을하면 當場에 나흘수 잇다하야 그리하야 所謂 心理療法을 하게되엿는데 爲先 흥흥한 曲藝場을 만들고 日當을 주어서 觀客을 超滿員이 되도록 모두엇다 場內는 勿論 써―커스同樣으로의 「링」을만드러서 曲藝師가 「아리스」孃을 끄러내엿다 이때 오래동안 滿員된場內를 보지못하던 코키리는 超滿員의 盛況을보고 그만기운이나며 明朗해젓다 그리하야 「링」우에서 온갓재주를다하고 元氣旺盛케 [illegible] 健康은 回復되여서 憂慮時는 解消되고 마럿다한다

나의關心事

民衆의運命

金煥泰

西班牙와 中國의 內亂의 記事를 아츰저녁으로 읽어 오는동안에 나의게는 「民衆의 運命」은 하는 큰 疑問이 하나생겻다

그리하야 나는 아츰저녁으로 新聞을 펴들고는 이 疑問을 풀어보려 하엿스나 다. 西班牙는 政府軍이 叛軍을 鎭壓하기爲하야 毒瓦斯를 뿌리는것도 다 「西班牙民衆의 幸福을 爲해서라」고한다. 萬一 그러타면 그들은 民衆의 福祉를 爲하야 —이것이 蔣介石이 西南派를討伐하라는 理由다. 그러데 李宗仁이나白崇禧가 國民政府에 抗戰하는 理由도 또한 「中華民國의 民衆의 福祉를생각하는데잇다」고 한다.

그리고 西班牙의 叛軍이 首都에다 大砲질을 하는것도 그들이, 그러케도幸福되게 하여주기를 念願하는 그들民衆으로하여금 서로 銃질을 하게 하야, 그들에게서 사랑하는 어버이를, 子女를, 男便을, 안해를, 兄弟를, 姉妹를, 빼앗고 집을 불질으는 그런가장 殘忍한 行爲를 [illegible] 民衆의 [illegible] 그들의 幸福를 [illegible]수잇키때문일까? 그러면 有史以來로 只今까지 그때에 그들의 眞正한 民衆이 [illegible] 제한번 그들의 [illegible]를 피와代價로 바든일이 잇는가?

아마도 民衆의 運命은 오―직 權力者들을爲하야 權力者의 [illegible]만 사는것이아닐까?

移民文學의一

過去와現在

① 韓植

「게울루·부란데스」는 그의 主著 十九世紀文學主潮史의 第一卷 「移民文學」中에잇서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十九世紀에잇서서 歐洲의 三大主要國은 各各 그의 文豪를 追放하엿다. 英國은 「바이론」을, 佛國은 「하이리히·하이네」를, 獨逸은 「비쓸·유―고」를. 그러나 이 文學者들은 그들이 追放當한때문으로 因하야 그의 文學的影響을 조곰이라도 喪失치는 안헛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란데스」의 말에 더 添付하야 十九世紀以後의 帝政露西亞를 들지 안흘수가 업는것이다. 더욱 한사람이나 두사람의 文學者의追放이 아니고 實로 十九世紀로부터 露西亞文學史를 들칠때에는우리는 〃빼트로 파부로후스크〃의 要塞의 鐵門소리를 들을수가 잇다 하느니만큼 모―든文學者들의 亡命 追放 流謫等의 事實을 볼수가잇는것이다. 特히 千八百四十年代의 反動期에잇서서는 그當時에서 故人이된 〃풀―쉬킨〃의 著作에 對하여서까지 苛酷한 迫害를 加하게되엿든것이며 千八百四十八年 「사킬콥, 시체도린」은 그가운데 若干의社會主義的傾向이 잇던 貧寒한 小官吏의 입을빌려서 말 하엿다는 理由로 七年동안 流謫당하엿든것이다. 그보담 먼처 露西亞의 近代文學은 모다 그리로부터 根據를 가젓다고할수가잇는 國民的天才詩人 「푸―쉬킨」도 亦是 겨우二十五年 저 有名한 「데까부리스트」(十二月黨)事件에 中心으로하고 지안헛스나 (이間에對하야 消息은 그의詩 「아리온」 [illegible]) 明白히볼수가잇다) 그러한 境遇에잇섯스며 모든 그의 詩作의 書籍등은 檢閱하지 안흘수업는 運命에 잇섯든것이다. 千八百四十九年四月에 所謂 「페트라세프스키」事件에 連坐되야 「도스토이엡흐스키」는 西伯利亞에 追放當하고 「트르게넵흐」는 「고―골」의 追悼文을 썻다는理由만으로 [illegible] 政府의 忌諱에 觸되여 모다 「페트로폴그」로부터 追放되야 [illegible]

創作 하엿다는理由로, 처음 六年동안流謫의生活을보내고 千八百四十二年에는 다시 追放當하야 外國에서 奔走한 一生을 맛치든것이다. 伊太利를 거쳐서 巴里로온그는 千八百四十八年 巴里×의 가장 [illegible]的인 實見記(六月의날)을써서 本國에 보낸것이니 이것은 [illegible]

「피―라, 그로코프킨」이 [illegible] 바와가티 [illegible] 하나가되고잇다. [illegible] 에서 新聞人民의 [illegible] 한일도잇섯스며 [illegible] 서 [illegible] 죽내 [illegible] 德惠」 [illegible] 시아의 [illegible] 하면서 [illegible] 너 作品을 [illegible] 나 그中에도 [illegible] 아직까지 [illegible] 이作品은 [illegible] 로서 [illegible] 네프가 [illegible] 예비로 [illegible] 나는 追放의 [illegible] 야 本國讀者에게 [illegible] 것이다. 또그

當時의 가장有名한 [illegible] 누이세프스키 [illegible] 는 政治的作家(批評家)는 [illegible] 進步的 文藝批評때문에

監禁되엿스다 그中에서 그는저 高名한 「피―라, 구로포트킨」으로하여곰 「이小說이 露西亞社會에 끼처준것가틀 廣大하고 또 深刻한 影響을드른게네프의 如何한 小說도 「톨스토이」의 如何한 著述도 或은 다른 如何한 作家의 作品도 밋치지못하는것이다 이小說은 露西亞青年의 학스로 「간」으로 되엿다. 또 이 小說이 發表하는 思想의 影響은 그때以來로 今日까지에 이르렀다고 [illegible] 八百六十二年에는 [illegible] 十三年까지 約二十年동안에 [illegible] 流刑되야 [illegible]

讀者社交室

▲初夢生의게드림 惠化町七一의一九 金家로한번訪問하여주심을바람니다.

▲社交室主諸賢이시여 本人은製圖(機械·建築)書籍等에 趣味를갓고 이예注力할가하오니 此等에 通信敎授하는機關이잇사오면 本欄을通하야 下敎하여주시면 感謝無量하겟나이다 市內一讀 宋德載

▲讀者中에 早稻田中學講義와 商業講義를 要求하는분이게시면 左記로照會하시오 廉價로提供하겟습니다 咸南端川郡廣泉面雲川里 金龍敏

▲讀者諸氏께묻습니다 나는獨逸 倉庫에서 못쓰는 리니閉鎖가지 [illegible] 指示하시는대로 사겟습니다 元山府泉町一五一 韓永煥

▲앙코라現行分冊 生後一個月된앙코라 現行分冊을 [illegible] 하신讀者諸氏는 左記에依하야 申込하시면 迅速照會하겟습니다

一、申込期日 八月二十日까지
一、「앙코라」種代價 雄二匹二圓
京元線新高山驛前 高和[illegible]

▲海王星(小說)을求하오니 或讓渡하야주실분이게시압거든 價格을通知하야주십시요
龍仁郡內四面南谷里 徐明鎬

▲八月一日本報讀者社交室을通하야 說問한入浦同意의 相對者이實驗中 約三十分間은 [illegible] 求한求婚者에게말합니다. 即 京城府 臥龍町七二番地中央書院미쓰리 李를 차저맛나면 如意成事되리라고. 一讀者

▲京城府阿峴町二〇一 國成社前海東理髮館에잇든 (本籍慶北尙州) 金守讓이라고도부르든 金潤登氏가 至今어느理髮館에잇는지 아시는분이 기시면 本社交室을通하야 左記住所로알녀주시면大端감사하겟나이다
大連市光鳳台一四七 玉寶壽司 孫聖鉉

▲七月三十一日 本欄所在書籍 放賣生에게 本人이 左記書籍을希望하오니 左記住所로代金과送金方法을 通知하여주심을敬要

一、改訂 崎式速記術獨習
一、長谷川修著速記術獨習自在
平北寧邊郡獨山面孔坡洞 李瓊河

▲左記各項을問議하오니 讀者社交室을通하여 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一、오림픽마라손코―스의里程
一、伯林大會各競技入場料
一、次期東京大會各競技入場料

若待生

▲海王星(小說)을求하오니 或讓渡하야주실분이게시압거든 價格을 通知하야주십시요
若待生

▲二十二日仁川求婚女의 住所氏名을 社交欄을通하야 告知하심을바람
玉寶壽司內 孫周鉉

▲濟陽邑內一洞에잇든朴鳳寶兄 兄과갈린지數年 그사이歲月은과 연빨럿습니다 兄을憂慮한 아츰과저녁으로 거리웁니다 事業을 [illegible] 本人은 朝鮮에서 처음으로된某事業을經營하야오지 七個月이되는 今日에至하야 資本에必要를느기게되엿사오니 어느官廳에게신지 未知하오나 提手하실意向이게시거든 本欄을通하야 職業과住所를下敎하야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一、東京伯林間國際電話一通話料

▲普通文官試驗準備코저 하오니適當한 講義錄과 書籍을廉價로 讓渡하여주시요
市內新孔德町山ノ二 雲波

▲한어머니出生으로 死亡이시 男子만 八男을 繼續하여 產兒케되오면 官費로서 養育케한다오니事實이온지요? 아시는분이게시오면 本社交室을通하시와 仔細히下敎하야주시요 農村一讀者

▲慶南居昌에서 親近하든 崔貞煥君 오날에 仁川에存在케된 넷날의 一屋은 君의住所알고자 편도애쓰고잇지요! 讀者여러兄任들께널리 뭇사오니 現在京城에서 病院或은 藥劑方面에就務 코잇는 崔兄을 아시오면 直接生의住所로 通知하여주십시오
仁川新金谷里四八 朴鐘元方 徐一星

▲李永文兄! 昭和九年度에 江界郡化京面合會會社龍山寺組에서 勤務하시든永文兄님… 오은實히 게시며 만흔 慈味를보시는지요 現住所를 알려주십시요 若待하나이다
熙川 情弟書

▲音樂에趣味를두신諸先生님이시여 小生이今般옥 기타―는附屬一式을 讓渡코저하오니 買受하실분은 左記住所로問議하심을 祝不已이옵나이다
市內觀農町一八五의十一號 一讀者白

新刊紹介

▲깨여진물동이 (目次)깨여진물동이 佐平成忠 片舟의가는곳 等 發行所 京城府樂園町九六 大衆書屋 振替京城四二七四番 定價二十五錢

▲金東仁野談集 金東仁著 (目次)唐太宗의松京 楊州의漁翁 元斗杓 等 發行所京城府樂園町九六 大衆書屋 振替京城四二七四番 定價五十錢

▲朝鮮農會報第六十八號 發行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朝鮮農會報發行部 振替京城三〇六番 定價一部六錢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第四十二號 發行所 新京朝日通日本總領事館構內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振替奉天一六二六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月刊ロシヤ 九月號 第四回ソヴエート演劇祭 ロシヤうちもて放談會 特輯 發行所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番地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三十五錢 送料一錢五厘

▲文部時報 第五五六號 義務敎育年限延長問題特輯 發行所東京市京橋區銀座西七丁目一番地 帝國地方行政學會 振替東京十三番 定價二十錢(送料共)

絢爛한天分의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 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잘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五十錢에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連載野談 (三)

布衾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畫

실의엇는편에 (十)

때는 정히 제후소저가 무진을 향하야 떠나라는 전갈밤 이때 백운국선은 제후소저가 밝는날에 무진을 향하야 떠난다는 소식을 뭇고 홀로 벽을 기대어 안저서 예날에 밝은눈으로 본든 제후소저의 그 아름다운 양자를 애달게도 생각하면서

「허헝 어밤만 지내면 제후소저를 숙청어시 리별이 이 세상만사를 다 이저도 잇기어려운건 제후소저 그 잇기어려운 제후소저가 너꿈안에 드단말공 내집 이웃에 잇슬때는 그래도 든든하얏거늘 이밤만지내면 그든든하든 마음까지도 업서질것 아아 내운수 내팔장 괴구하거니 누구를 탓하랴만은 강보적부터 매젓든그 사랑을 버리기가 어려워라. 제후소저! 래평히가서 복만히 바드며 잘살지어다. 이세상의 연분은 하늘이 미워하고 귀신이 시긔하엿지만 다음세상에서나 다시만나 리별업시 살어지이다. 내 가슴속에 제후소저의 일홈을 기피 품고 죽히 죽고저.」

하며 부여케먼 두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두손으로바뎌 뿌리며 느겨 울엇다.

이때 창밧게 신끄는 소리가 가벼웁게 들리다가 창미테 이르러 똑끈치며 뒤미처 창을두드리는 소리와함께

「국선서방님! 백운국선 서방님!」

하는 극히 부드럽고도 명랑한 목소리가 가만히 들렷다.

「거누구 용?」

하며 백운국선은 놀랜음성으로써 물엇다.

「제후야요. 제후!」

하며 제후소저는 가는 목소리로써 온통을 말하얏다.

「응 제후소저?」

하며 백운국선은 벌떡 이러나 두손으로 압을 더듬으며 잡바질듯 어푸러질듯 허박지방 창문을 열고 두팔을 내밀어 제후소저를 차젓다.

제후소저는 얻는 두손으로 백운국선이 얼골더지려는 손을 떼 바들엇다.

그리고 백운국선과 제후소저가 서로 손을 잡고 말이업시 다만 흑흑 느끼며 울뿐이다.

이때 특히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의 두눈을 바라다보며 떠욱 느껴울엇다.

이와가리 두몸이 한몸이 되어서 얼마동안을 서로 느겨울다가

「대관절 이것이 웬일이요 꿈이지 꿈이여. 꿈이라도 이꿈은 깨어주지말어요. 어쨋든 고마운 거룩이요. 이병신을 작별하자고 이어둔밤에 그어려운 거룸이 지신몸로 고마운 거룩이용.」

하며 백운국선이 다시 제후소저의 손을 굿세게 잡고 또한 느껴운다.

「우지마세요, 우지마세요. 꿈도 아니오 작별도 아니니 우지마세요.」

하며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이우는것을 만류하면서 자긔는 느껴운다.

「아아. 꿈도아니요. 작별도아니라니. 그것이 무슨말슴?」

하고 백운국선은 우름을 끈치고 두눈을 허번떡거린다.

「서방님! 이몸은 서방님께바친지 벌서 오랜몸. 부모의명령을 거역지못하야 마음에업는 길을 떠나기는하나 어찌 오래전부터 매저노흔 신의를 변하리. 이목이 무서운지라이곳에서 오래동안 자서한 회포를 다할수업는것.」

하고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의귀에 입을 대고 무엇을 긴하게 부탁한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아니러니와 어떠케하자고?」

하며 백운국선은 의심스러운긔색으로 제후소저의 부탁하는말 되짐어물엇다.

「그런일은 내게매기고 내말대로만 어임어시 허서요.」

하며 제후소저는 오직 부탁하든대로 해합만이오 그런일은 뭇지말라하얏다.

백운국선은 제후소저의 두번부탁하는 말을 듯고 두팔을 벌려 제후소저를 얼사아늠새, 그빵과 빵 입설과 입설이 한때 다으며

「이것이 최후로 한번의 맹서하는 사랑의 신의요.」

하고 두사람의 목이 떼어지며 제후소저는 백운국선을 작별하고 돌아섯다.

曆 八月廿九日(土) 陰丙申七月大(十三日) 癸未·木·女·開

●祭祀에宜함 ●滿潮二十三日(初七日) ●日曆九月八日(舊十三日)

漫筆

映畫界로나오는 에國의公主殿下

亡國의千秋恨을품고서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렛·셀라시에一世陛下의 따님이 映畫俳優로轉向?—萬若그러타고 假定한다면이것은 센세이슈날한뉴—스가아닐수업다 돈버리라면 一國의皇帝나 首相일지라도「스크린」에올여 노치안코는 못백이는 映畫製作業者의일이라 하일렛·셀라시에陛下의御出演을 빌어본映畫會社가잇으니 세하이公主에게着眼하지안흘理萬無하며 또한承諾을快히 바들지도모르는것이다.

더욱이 形便이조키는 세하이公主는 映畫가趣味에맛는다는데잇서서八分의可能性이잇는것이다.

英國에서 游學한芳年十七歲의公主는 모—던·껄이나 그러나양키—孃들과가티 담배나 칵텔을질기는尖端은가지지안허도 自身이 피아노를 치고 짜—스音樂을大端히 조화한다 거긔다가또한 레니스는 더욱조화한다는데 세하이 公主게서는 米國이나 英國女子들의 享樂生活에대단히 興味를가지고 歐洲에亡命中에는 반듯이 自動車運轉을배우겟다는 希望을가지고잇다.

그런데 問題는 果然세하이公主가 映畫에出演할것인가?그러치안흐면 안할것인가?가興味잇는것이다 그러나 映畫會社가아모리 公主의 뜻을맛추어서甘言을弄하야 出演을願하더라도 結局그것은 皇帝에歸할것이다

양—키들의 말에依하면 公主는 映畫界에나가는것이 亡命貴族의 最適한일이라고 하나公主로서는 꿈에도 그런일은 생각지안코잇다 더구나 公主는記者와의 인터뷰에잇서서「皇族出身이 俳優가되여 舞臺에선다는것은 威信을損傷시키는것이니 나는 그냥普通少女로서 生活하겟다고 明言한일이잇다 나의아버지에게 어렷슬때부터 感化되여온氣品을 일허버려서는 안되겟슬안다」하고 心境을 이야기하는것을보아 映畫界로나간다는것은全然可能性이 업서보인다。

"칼 맨" 英國B·I·P社作品세실·루이스監督 루·바ー크主演 (上)

"妖鬼잉야" 에이스·폴로作品J·O·코코監督 (八月二十九日부터 市內團成社上映)

라디오

二十八日 (金曜)

◇午後六時三十分 童話 "사이조흔동무" 金福鎭
◇同六時五十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 "童水이야기" 第六年理科教室 金鎭仁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十分 라듸오·드라마 "生活圖" 二景 東京學生藝術座
◇同九時十分 歌謠 一、故念 二、大洋에 三、異邦令 卞貞紅 吉界玉
◇同九時三〇分 合唱管絃樂(마르코—도演奏) 一、管絃樂……마르콩세르·마무—르管絃樂團 "交響詩""표시세"……프랑크作曲 指揮 빨표 二、獨唱……크레이베르 "봄소래"……요한·슈트라우스作曲 解說、朝鮮音樂家協會 李鍾相

第一放送

◇午後六時〇分(大) 童話劇 B K고도모써클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座 增田廉吉
◇同六時三〇分(東) 講演 藤原笑平
◇同八時〇〇分(東) 謠曲 梅若六郎外
◇同八時四〇(大) 尺八獨奏 小池玲
◇同八時五〇(東) 物語 御橋公

二十九日 (土曜)

◇午後零時五分(東) 輕音樂
◇同二時 野球試合實況—龍山球場으로부터—「門鐵對鐵道」
◇同六時三〇分 唱歌劇「장안드는각씨」全一景 —太成均作— —配役— 文姬……韓貞淑 景順……(그의동생)……金順伊 이웃아저씨……徐群波 □□……崔淳根 其他多數 버들피리會 指揮 太成均
◇同七時 週間時事 東亞日報 高永煥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 二、平調 三、界面 四、□ 五、編 盧錦桃 管絃 明柱完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古談 靑鳥 金漢雲
◇同九時三〇分 十杖歌 外一 一、十杖歌 二、赤壁歌 三、풋고초 四、휘모리 柳開東 全光泰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
◇同一〇時三〇分 常識講座 登張信一郎
◇午後零時五分(東) 輕音樂 國富信一
◇同六時(東) 노래공부 단道子
◇同六時二〇分(熊) 講座 鈴木登
◇同七時三〇分(大) 어린이와가정의저녁 一、唱歌 大阪放送合唱團 二、이야기 村瀬幸子 三、바이올린獨奏 遠藤喬子 四、獨唱 木村美佐子 五、라듸오드라마 蝴蝶座 六、管絃樂 大阪오케스트라
◇同八時三〇分 라듸오·드라마『生活圖』二景 配役 朴(會社員)…金一英 그의妻…朴桂順 李(會社員)…金東赫 그의妻…金慶愛 同窓生…朴東根 —文藝部編— 東京學生藝術座 演出 朱永涉 音樂 金永華 效果 李鍾一

三十日 (日曜)

◇午後一時 野球試合實況『門鐵對全京城』—京城球場으로부터—
◇同六時三〇分 童謠 忠信學院生徒 伴奏 金龍奎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盧基南
◇同八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나)唱劇調 春香歌 作故丁南希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分 音律『靈山會相』 朝鮮正樂傳習所員
◇同九時 雜歌打令 一、영산타령 二、뒷산타령 三、경발림 四、자진산타령 五、개구리타령 六、山念佛 金順紅 金振鳴
◇同九時三〇分 映畫이야기『다시맛날때』 成東鎬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植木秀幹
◇九時四〇分(東) 노래공부 단道子
◇午後零時二〇分(東)
◇同一時五〇分 新日本音樂 井口秀水
◇同三時一〇分 講談 柳川春葉
◇同七時三〇分(大) 日曜뉴—스
◇同八時 (東)세이야기 田中貢吉
◇同八時二〇分 (東)浪曲 寶晴 宮崎
◇同八時四五分 (東)라듸오·드라마 作及演出 岡東太郎

第一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會期 自十月五日—至十四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入選作中에서左記一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褒賞

(中等部)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牌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狀 副賞 三十圓)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牌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 各 (正賞 賞狀 副賞 十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本社長特選賞에依하야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西洋畫科 (四君子畫包含함)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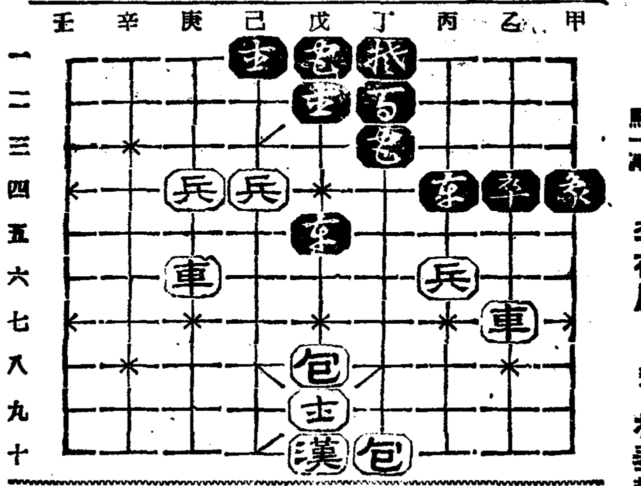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廿七日
一、搬入期日 自九月廿八日至九月三十日(但當地支局은九月二十九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여 本社 又는 各地方支局에提出하고 作品裏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學校學年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地方支局에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葉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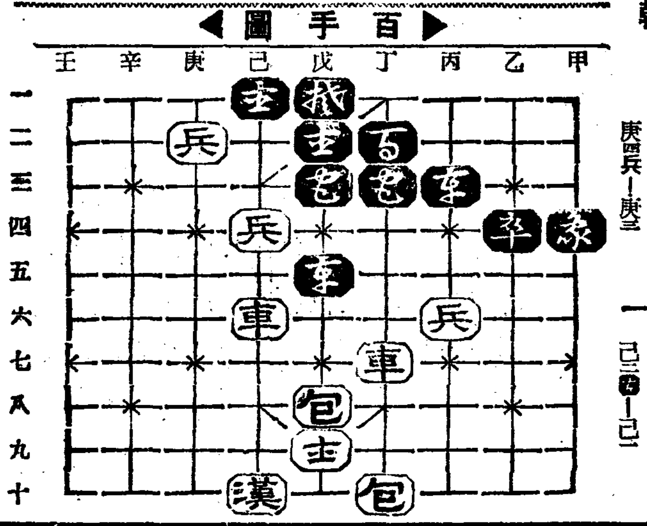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

漢先手 馬一滅 李在鳳 楚 朴奉翰

九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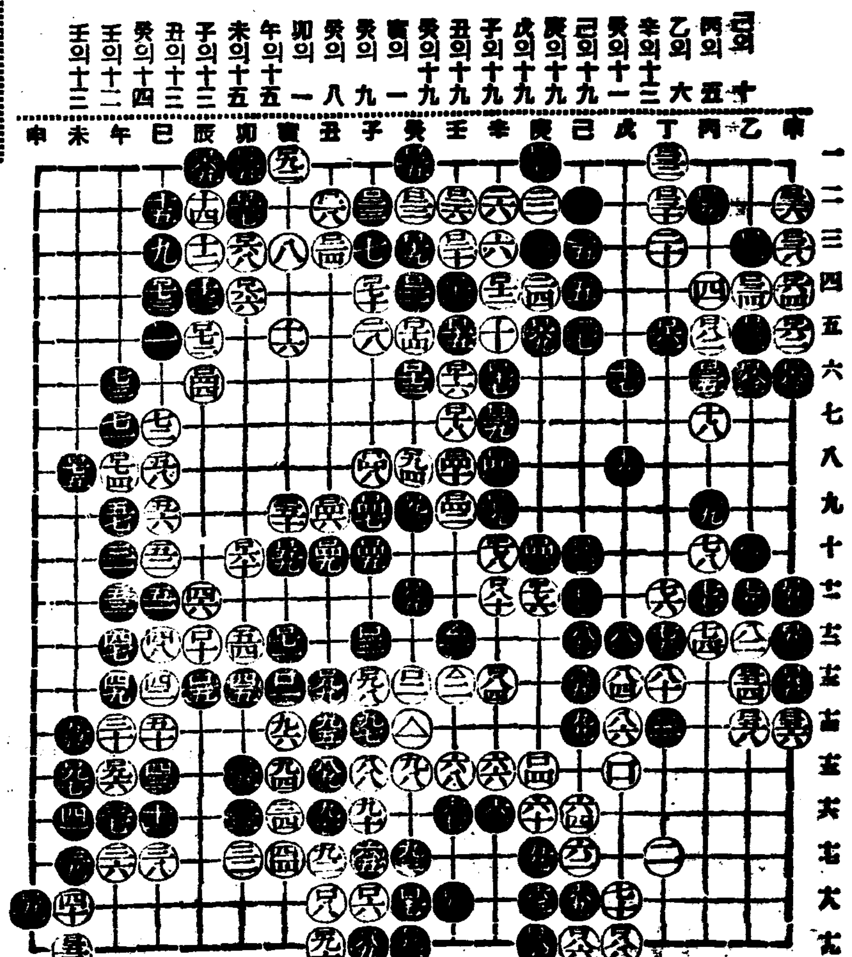
百手圖



乙車—丁七 己三—己二 庚六車—己六 丙四—丙三 庚四兵—庚三
戊包—戊二 戊士漢—己二 丁包—戊二 庚兵—庚二 己三—己二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2—

白 崔鎭文 黑先 丁奎春



●一八一 己의十
○一八二 丙의五
●一八三 乙의六
○一八四 辛의十三
●一八五 癸의十一
○一八六 己의十九
●一八七 庚의十九
○一八八 戊의十九
●一八九 子의十九
○一九〇 丑의十九
●一九一 癸의十九
○一九二 寅의一
●一九三 癸의九
○一九四 癸의八
●一九五 卯의一
○一九六 午의十五
●一九七 未의十五
○一九八 子의十三
●一九九 丑의十三
○二〇〇 癸의十四
●二〇一 壬의十二
○二〇二 壬의十三

▲對局者談 此回는 一二三四修正에 別無指摘可考故로 省略하노라

大懸賞

藥用化粧水 風島チーゼル (壹本式) 十五錢品

只今 당고도—랑을 買上하시는분은빠짐업서 을넘니다

그外에興味잇는懸賞問題로二重賞品이當籤됩니다.

銀幕의人氣者 映畫스타—의이름알겨

オリンピック大会 올림픽

アメリカ 日本 ドイツ フランス スエーデン

白粉과크림과化粧水의綜合作用을가진가장새로운化粧料로서젊은近代的女性에絶對한人氣잇는당고도—랑의大懸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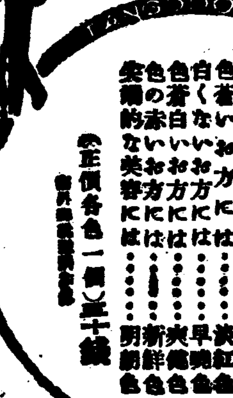
答案쓰는法
우에寫眞의五人의스타—의이름을左記와如히써서보내주십시요 (〇中에文字를써서느으시요)
日本…高〇早〇
アメリカ…ジー〇・パー〇ー
ドイツ…マ〇ネ・デイ〇〇ッヒ
スエーデン…グ〇タ・ガ〇〇
フランス…シ〇ンヌ・シ〇〇ン

答案보내는法
答案에는반듯이당고도—랑의렛델(瓶에貼付한렛델을)로즉여서때라) 이더가固形당고도—랑의函中의說明書를添付하야住所氏名을分明히쓴後보내주십시요 (封筒에너어서三錢切手貼付할것) 正解者中에서抽籤하야 (警察官新聞社員立會)左記의賞品을贈呈합니다

훌늉한二重大賞品
壹等 拾名 特選訪問着 (ジーン・パーカー好み アフターヌンドレス)
貳等 五十名 絹夜具・洋家具セット・三面鏡 / 高級銘仙・シンニウ入本絹名古屋帶 / 新型旅行型・フランス人形
參等 百名 晴雨兼用パラソル・美術置時計 / 特製ハンドバッグ (以上各等一點自由御選擇)
四等 二千名 白粉下のいらぬ乳白粉 ファース (定價壹圓) 壹個宛
五等 藥用化粧水 風島チーゼル 壹本宛

締切 昭和十一年九月三十日
發表 昭和十一年十一月上旬 本社主催新聞紙上
送り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株式會社 宇野達之助商會懸賞係

姉妹品 (七色)
固形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랑
スマートな容器入 高級パフ付
各色一個 (〒 40)



얼굴빗에따라 七色 (定價各色一個)三十錢

タンゴドーラン 당고도—랑

美와魅力 近代化粧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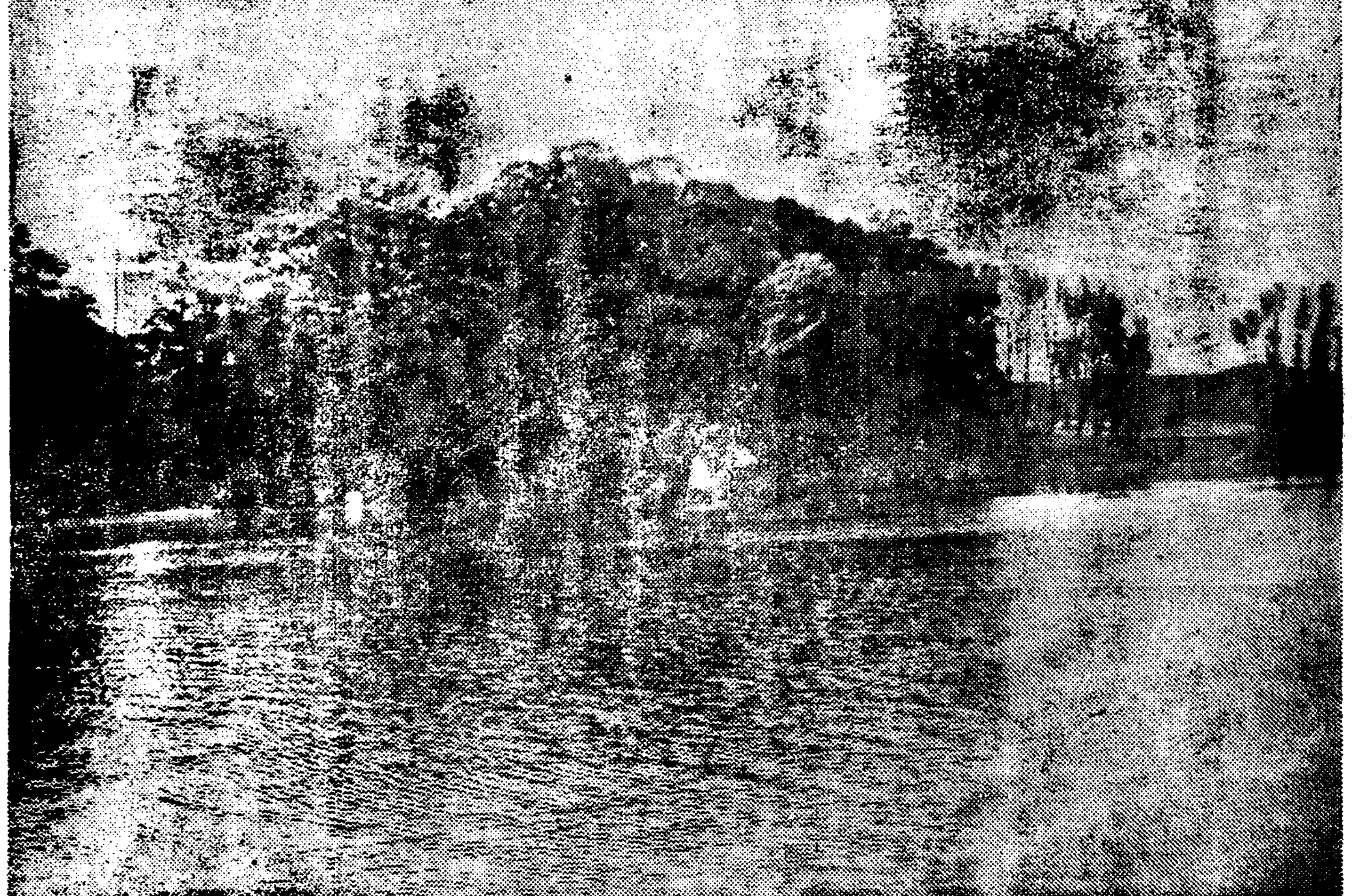
各國代表選手
(日本) [illegible]
(アメリカ) ジーン・パーカー
(ドイツ) マレーネ・ディートリッヒ
(スエーデン) グレタ・ガルボ
(フランス) シモーヌ・シモン

金堤地方에또暴雨
農作物全滅狀態
家屋浸水、流失、橋梁破壞等
各地의交通도杜絶

【金堤】지난이십삼일부터 김제지방에는 또다시 비가 나리기 시작하야 계속중인데 두번이나 수재를당하야 조선의미고라칭하는 김제평야의 농사는 평년작에비하야 사、오할가량이나 감수될예상이라하야 농촌에서는 연한이지음에 호우가 다시 습래하야 김제읍내급 연정은 이십오일부터 물에니가나서 전시면이 물에침수하야 목제금가마니등속으로 가가호호 문전에 방수제(防水堤)를 렵시로 축조하기에 필사적이며 김만경의 옥야철리 미고는 일망무제한 황해(黃海)로 변하고말엇다 한재 도령병 충재 수재등으로 반생반사중에도 발수하기까지 성장한 벼는 금번홍수에 여지업시 전멸을 당하게되엿다 류실가옥 침수가옥은 부지기수이며 교량이 류괴되어 또다시 김제원평간(金堤院坪)김제전주간(金堤全州間)정기자동차는 불통이며 인축의사상은 아직미상이나 이대로일일만 더계속하야 비가 나린다하면 상상할수업는 참극을 연출하리라하야 일반인심은 극도로 흉흉하다고한다

全南各地에도豪雨
農作物被害莫大
線路破壞로交通杜絶

【光州】거번의 상남수해에 비교적피해가 근소한전남일대는 월여를두고 장마가 계속되엿스나 그다지 우량이 만치안튼바 이십오일부터 렬풍노우하는 우량은 백수미리식 오게되어 이십오일 오후열한시경부터 송정리 려수(麗水)간의 송려선(松麗線)이 불통이되엇다는바 침수로인하야 철도가류실된장소는 려수기점십이키로 지점되는 미평역(美平驛)과 쌍봉역(雙鳳驛)간의 약사십미돌이류실되여 그와가티 렬차가불통이라는바 본선구원은 총동원하야 복구에 전력을하고잇는데 송려선각역에는 일본내지가는 승객이만타고하며 금번호우로 또한해남(海南)우수영(右水營)간의 자동차선로도 불통이라는바 농작물의 피해도 막대하다한다



◇……水北亭과自溫臺—百濟古都扶餘名勝巡禮의二—(窺岩津에서 遙見하야)

自溫臺後丘에 一亭이잇스니 近代文人의 所建한水北亭이 이것이다。亭子는 비록크지는안흐나 淸爽한趣味가좋은다。老樹는聳立하야 江流를굽어보고 紅葉은丘下에 흩날리나니 數모 黃綠紫赤枝는 꾸풍하 욱어젓다。

◇自溫臺는丘下에나려잇는 數十丈의奇岩으로 岩面에는 陽光이透明하야 [illegible]。臺下에는 水色이淸澄하야 [illegible] 江流는 洋洋하야 [illegible]。岩上에는 三四人이안저 놀만한 平板의石臺이잇스니 [illegible] 王의行하심을 [illegible] 自溫臺라 일카른것이다。

◇山넘어돌리는 山有花노래는 舊古의情을자어내고 窺岩津에닷는소래 [illegible] 재촉하나니 처량한호금소래 白鳳에 자자지며 中流에뜬 고기배는 月色을 [illegible] 自溫臺를 휘돌아 [illegible] 올으다오다。岩上에 고기낙는 지아비도 한가로운 낙시(釣)줄에 해가는줄모르나니 暮色이 자못 [illegible] 어느덧 [illegible] 仙境에 오르는듯싶다。

店員을總動員 同情販賣行商
方洙赫氏美擧

【釜山】부산본정 「자-ㅣ베스찰회점」은 당지에 유수한 상점으로 일반의 신용이 기픈 영업이 우량발전하는바 그점주 방수혁(方洙赫)씨는 본래 자선심이만흔 유망한 청년으로 금반 남선지방의 수해가 참담함을 듯고 리재동포를 구제키 위하야 희생적으로 자기상점의 점원일동을 총동원하야 [illegible]부터 한일주일간 시내급 시외의 유지제씨의게 일용품을 판매하야 그리익금 전액을 수해구제금에 제공하기로 하엿다하니 리재동포의 참담한 정상에 뜨거운 동정이 만흔 지방인사들은 만

百餘名反滿軍代表
安東縣襲擊謀議說
鳳城縣에根據둔閻、趙軍一派로
安東官憲緊張警戒

【新義州】모방면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지난이십일일 오후다섯시 봉성현제륙구하가장(鳳城縣第六區何家莊)에 반만군(反滿軍)려생당(麗生堂)일파 이십명 조흑자(趙黑子)일파 사십명 화북군(華北軍)일파 삼십명 장가인(莊家人)일파 이십명의 각부대 대표자 일백사십명이 모이여 밀의(密議)를한결과 안동현을 습격하기로 결의하고 해산하얏다는데 안동현 관헌에서는 이를 넘려하야 주야로 엄중경계중이라 한다

安東三道浪頭에또 反滿軍部隊潛伏
安東守備隊에서出動

【新義州】안동현삼도랑두(安東縣三道浪頭)에서 약 삼십리 가량 떠러저잇는곳에 기종을알수업는 반만군이 잠복하야 잇다는 정보를밧고 수사한결과 이십사일에 이르러 반만군세명을 체포하얏는데 배후에 [illegible]부대의반만군이 잠재하야 잇는것이 판명되여 이십오일 안동수비대(守備隊)에서 이를 토벌코저 출동하얏다한다

市民慰安音樂

【長津】함남장진군신남면 하갈우(下碣隅)에서는 오는이십구일 [illegible] 본사장진지국후원으로 시민위안음악회를 당지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데 연사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illegible] 文貴童 金相[illegible]

求禮蟾津江上에서 荷物船顚覆沈沒
船員十二名僅僅救助

【求禮】수일의 장마에 섬진강(蟾津江)물이 창일하고 하여잇는 요지음 구례(求禮)에서 부산(釜山)가는하물을 만재하고 사람을 열두명이나 태운배가 전복되여 일대소동을일으켯다 지난이십오일오전팔시경 구례군금정리(金亭里)에서 부산가는 하물을만재하고 사람을 열두명이나태운배가 토지면 파도리(把道里)아레를통과하다가 여울물의격파에부닷처 배가전복되면서 칠명이 물에 빠지엇는데 선부(船夫)세사람은 헤염을처서나왓스나 남은아홉사람은 속절업시수중고혼이 될지경이엇는데 천행이라고 할는지 배에실엇든 장작(長木)을 간신히붓잡어타고 구호의손이 오기만기다리면서 수량이깁기로 유명한곰소(熊沼)를지처 오마장이나되는지점에서 위기일발의 찰나에 조난구호선의출동으로 전부생명을 부지하게되엿다한다

近畿蹴球大會
天候關係로延期

【利川】리천축구단(利川蹴球團)주최와 본사리천지국후원인 제일회근긔축구대회(近畿蹴球大會)를 오는이십구일과 삼십일량일 [illegible] 교통이두절되고 운동장도 수선을요하게되엿슴으로 부득이 무기연기키로 결정되엿다한다

寬甸縣南荒溝에도
六十反滿軍出現
十餘名拉去·現金強奪

【新義州】이십오일 오전세시경 의주내곡(義州內谷)출장소 대안관전현고루자촌남황구(寬甸縣古樓子村南荒溝)뒷산에 거동을알수업는 반만군륙십여명이 칩입하얏음으로 그곳에서 [illegible]공작중인 장전하구(長甸河口) 경비대원 열여섯명과 경계중인 남황구자경단 다섯명이 협력하야 교전을 하엿스나 결국소인수로 패하야 자경단원 한명이 잡히여갓는데 적은 반만군은이 기회를 리용하야 륙십명을 삼대로 나누어 남황구부락을 습격하고 만주인 왕인당(王仁堂)외 열네명을 잡어가는동시 화승총(火繩銃)한자루와 현금삼여원과 의류(衣類)다수를 강탈하야가지고 대안평하촌(大安平河村)방면으로 도주하엿다한다

吳城의鐵中島 衣類十七點을

【神戶】신호제륙공보(?)의 [illegible] 다수로 풍양동각단체연합주최와 본보신호지국후원으로 금번조선수해 구제위원회를 조직하고 대대적활동을개시하엿다함은 본보에 귀보한바이거니와 이소식이 한번 전파되자 각방면인사로부터의 연금품이답지하는현상이다 그중에 귀특이도 자긔의입든옷을손에들고 구제위원회본부를 차자와서 이것이 비록약소하나마 긔한에 우는동포에게 전달하여달라는 동포녀성이잇다 그는현재풍양동조의 생활을하는 시내중학구팔오통오정목 호남관(湖南館)의 [illegible] 目錄(?)이란 조선료리집 매담 히 때상하여주기를 바란다한다

衣類目錄
一、李順點 上衣三點 下衣一點
一、朴化仙 上衣二點 下衣三點
一、金鳳南 上衣三點 下衣三點

리순점(李順點)(二一) 박화선(朴化仙)(二○) 김봉남(金鳳南)(一七)등 삼인이 각각아래와가튼 물품을기지고왓는바 구제위원들은 감격의눈물을 흘렷다고한다

美貌의妻를疑心 同寢하든中絞殺
泗川郡下住川里서

【泗川】어엽부게 생긴 자긔처의 외모동에 의의를품고 질투한남어지 처를 교살한비극이잇다 경남사천군 사남면가천리 (泗川郡泗南面住川里)농업 김순상 (金順祥)(二○)은 지난이십오일밤에 가티자는 처리재빈(李在彬)을 노끈으로 목을졸라죽이고 도주할려다가 그의잇흔날 이십륙일오전 삼시에 경찰에 체포되어 방금 엄중한 취조를밧고잇는데 그가 사랑하는처를 교살한 원인은 처리재민은 원래얼굴이 이뻐서 특히 사랑하든중 수개월전부터 행동이 수상한점이잇슴으로 여러가지로생각한 남어지 이웃에사는 모(某)와 관계가잇다고 생각하고 질투심이 폭발한 남어지 그와

留學生親睦會
公州에서組織

【公州】충남공주읍에 본적을두고 타지외국 전문학교에서 학업을 닷다가 금번하긔방학으로 고향에 도라와잇는 학생십여명은 지난이십륙일오후 두시경에 군이 외지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하기 위하야 공주유치원에 회합하야 취지를 설명하자 유학생 친목긔관이업는게 유감으로 간단회계한후 성으로 유학생친목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야 공주유학생 친목회를 조직하고 이후의 [illegible]를 선출하얏는데 [illegible] 당선된 임원은 다음과갓다한다

◇氏名及在學校
[illegible] 京城帝大豫 [illegible] 京城帝大 [illegible] 京城醫專 [illegible] 京城法專 [illegible] 京城高工 [illegible] 美術學校 [illegible] 仙臺市北部大 [illegible] 東京商大 [illegible] 東京本高等 [illegible] 東京日本醫專 [illegible] 東京高商

甕와糖粉 混食은禁物?
高城邑內에서蟹中毒騷動
一般은極히注意할點

【高城】군읍고성읍내에는 [illegible] 고 중독을 이르키어 벌서사망자 한명이낫섯고 그외에도 중독이되엿자가 중중잇는 모양이라하며 일반의공포는 날로 늘기고 잇다고한다 이제그내용을 드르면 고성군고성면서리 합석극(咸錫極)의 모친최씨(崔氏)는 지난이십사일 게와 찹쌀를 먹고중독이 나서 이십오일에 사망되엿고 고성면동리 리진구(李鎭九)씨 부인도 게와사탕을 먹고 중독이 되어 신음중이라고한다 그래서 일반은 게와사탕을 먹은것이라하며 일반의 주의를 요하게되엿다 한다

大公園을前提로 牡丹公園改修

【平壤】장차 국립공원으로 지정을바틀 모란봉공원의 유람도로(遊覽道路) 부근에대의 토지는전부가 민유지인관계로 공원시설에 적지안흔 지장이 잇고 하는때에는 모란봉일대는 대공원으로 지정이되리라든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되도록 주암산(酒岩山)에서 고구려성지(高句麗城址)까지가 공원의구역내에 편입이될터이므로 미리 이준비로 모란봉에서 주암산부근의 민유지를 매수해둘 필요를 늣기게되여 평양부에서는 풍치림설비비로 금번도에 산에 오백원을 계상햇스나 이런 적은금액으로는 도저히 해결키가 어렵다한다

그의 목적을 달할수업서 명년도예산에는 상당히 거액의경비를 계상할터이라한다 그리고 모란봉공원일대의 벗나무는 고목이만허 말라버리고 잇서 그보충으로 새나무를 심기로되엿고 칠성문(七星門)에서 을밀대(乙密臺)에일으는 도로를 확장보수 허가를어더 확장하고 벗나무를심으기로되여 역시 명년도에 예산을 계상케로 되엿다한다

參禮市內下水溝 設置期成會創立

【參禮】전북삼례에서는 하수구 문제로 시민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본보에 긔보한바 어니와 당지경찰의 간섭으로 시민대회는 금지되고 삼례시내 하수구 설치긔성회로 지난 이십륙일오후시에 [illegible]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좌의임원를 선거하야 앞으로의 사업을 활동하기로하엿다는데 임원의 씨명은 좌와갓다고한다

會長 [illegible] 副會長 高[illegible] 總務 河在[illegible] 許[illegible] 岸[illegible]五郞 李[illegible] 朴[illegible] 宋本[illegible] 金[illegible] 保[illegible] 金[illegible]吉

錦江增水十一尺

【參禮】지난이십삼일이래 계속하야나리는 호우는 지난이십륙일 일에 장경지방은 일평이상미리의 강우량으로 다시 금강의 증수 십일척에 달하엿다한다

本報求禮支局서도 災民救護에活躍

【求禮】그해처안하도 살기어려운이땅에 천변지재가 쓰러닥이 업스니 조선민중생활의 전도를 위하야 다가리 [illegible] 금번의 수해는 우리가 [illegible] 는일이로는 [illegible] 대재난으로서 인명의 사상손해 을멀고 재산피해경도는 수천만원을 허게되는라인데 부모를 일흔어린이와 사랑하는아들 딸과 남편과 안해 [illegible] 누이동생을 일흔에 수많에입 허버리고 입을것 먹을것 잠잘 곳조차 바이업서 헤매는 [illegible]

[illegible] 잇는 [illegible] 상을 [illegible] 는정경이다 [illegible] 구호지국에서는 [illegible] 구호운동을 [illegible] 저금위하야 [illegible] 놉게 [illegible] 는데까지 [illegible] 지방유지를 [illegible] 심의 다소를 [illegible] 선배인사들의 [illegible] 는 [illegible] 하다고한다

方峴地方에染病
一日十二名發生
當局防疫에努力中

【新義州】평북구성군방현면하단동(方峴面下端洞)에 "적리"가 발생하야 하로동안에 열두명이나발생하엿스나 그곳 보의 사람들부터 류행성감기로 생각하야 별로 예방하지안엇든바 감기증세는 이상하게도 [illegible] 로 계속전염을 하엿음으로 장질부사로 판명되여 이십륙명을 도 입원시키고 구해(舊田)의 [illegible] 계에 [illegible] 중이라한다

水災同胞救濟의聲
南에서北에서呼應!

本報長津支局主催 同情金品募集
有志의多數同情要望

【長津】금번남선지방의 수해는 일곱도사이의의 대참상으로서 수만의 리재민들은 하로비빼구 제의 손이닷지안흐면 미우비절 참절한상태에 빠지게경이라한다 이를 만일이라도 구원할가하야 본보장진지국에서는 수해동정금품을 모집하는중이라는데 일반 인사의 동정이 크게엿서주기를 바란다고한다

本報長津支局主催

兒童服六十三件
兒童肌寒에同情
雜店工安商名 各金五十錢式

시내포항동(浦項洞)에서 잡화상을경영하고잇는 리광조(李光祚)씨는 청취한금만한재지의 어린이들의헐벗고 떨고잇다는 본보긔사에 크게감격하야 상품중에서 주로아동복(兒童服)을 꿀라 예순세벌의 의복을 가지고 이실이오일 서내신암동(新岩洞)에 잇는 국제화학(國際化學)어린이 명은 얼마되자안는 공용(工藤)모에서 한사람에 오십전씩 모아가지고 재지의동포에게 보내 달라고 현금이원을 본보지국에차저와의탁하엿다

상일거동에 지국에서 접한소식에 멀리는목소리로 무한히근심하는말을하여 감격하고로 고향인 강원도(江原道)의비을의마다하엿다

눈물로비저내는 가지가지美談의花

【淸津】나날이 혹심하여지는남선지방 수해의 참보를 밧고잇든 지난삼일 본보 청진지국에서는 선접(?)비라」만여매를시내 가가호호에 배부하고 각처에 광고를내걸어 수해구제의연금품(水害救濟義捐金品)의 모집을 알리게되자 각지에서 가지 가지 눈물겨운 미담의꽃치 퓌여나게되야 일반에게 저 지안흔 충동을 주게되엿는바 그중에도 몃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가튼것이 잇다。그리고 이번 우리 동포들의 재해 [illegible] 로 이번에는 소위 세궁민들 의 [illegible] 그가 [illegible] 부 [illegible] 하면 [illegible]

비록略少하나마 나의精誠뿐이오

지난이십삼일 오후 본사지국에 조선옷을 입은 한 부인이 와서 [illegible] 의에도 「여보시요! 조선일보지국이애 계신분이요?」하고 부르는소리에 「[illegible]」하고 나가보니 그부인의 말이 「나가리 가난뱅이로 구지라 면 [illegible] 나의정의를 [illegible] 마나 [illegible] 을 당하고 잇섯는데……하며 [illegible] 다

어부로 [illegible] 를 버 리고 [illegible] 보이는 [illegible]

"부대부대鄕同에 내故鄕에보내주"

이십이일 [illegible] 에 [illegible] 성스럽게 [illegible] 세의 [illegible] 잇서서 [illegible] 고향에 [illegible] 농여 [illegible] 켜고 [illegible] 고 이것을 [illegible]

開城
第二回 全朝鮮個人庭球
▲時日 八月三十日
▲場所 水岩山코ー트
◇主催 高麗體育會
◇後援 本報開城支局

瑞山
全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廿九日(土曜)午後二時
▲場所 瑞山邑內本會A·B코ー트로
◇主催 忠南瑞山庭球會
◇後援 朝鮮日報瑞山支局

長津
市民慰安音樂大會
▲時日 八月二十九日午後八時
▲場所 下碣公會堂
◇主催 長津留學生會
◇後援 朝鮮日報長津支局

安城
第五回 畿湖蹴球大會
▲日時 八月二十九、三十日兩日間
▲場所 安城公普球場
◇主催 安城體友俱樂部
◇後援 朝鮮日報安城支局

經濟解說

蘇聯經濟政策

⑥ 大體變遷의內容

國家의 信用的政策上 또 通貨制度上 키어려운 事實은 通貨制度上의變化이다. 社會主義的經濟의 最初時期에 잇서는 通貨가早晩廢止될것이다. 蘇聯도 처음에는 이通貨가업는制度를 創設을 企圖한일이 잇섯다. 紙幣는 公然이 減價되엿고 通貨의 使用되엿다. 所謂 新經濟政策에依하야 될수잇는대로 通貨價値를 安定케하라는 要請이 생기고 一九二二年에 新設된 國立銀行은 金, 外國貨幣及 商業手形에 基礎를둔 所謂 첼로본츠貨가 發行되엿다 그뒤 二年을 지내인때 政府는 첼로본츠와 一定率을保有하는少額의不換紙幣를發行하엿는데 一九三六年三月에는 佛蘭法貨를

基礎로 貿貨의安定을期하게하야 貿貨의對外價値와 對外價値의 關聯은十年以來처음으로 그거리지를 갓추게되엿다 이와가티 蘇聯의通貨制度는目下에其他諸國과 달른것이고 「通貨업는制度」의觀念은 어느때될는지 모른다.

×

蘇聯의商業은 國家또는公共團體乃至는協同組合企業의손에獨占되엿다 此等의 諸團體는必要한物資를 사고 一定한都賣價格으로써 完製品을 파는小賣業도 國家또는 國有化한協同組合企業의 손으로 經營된다. 그러나 此等商業關係에잇서도 各企業間의 競爭을 激甚化하고 이로因하야 各企業의 能率이 노파지고 또從來中

關係人의 相互契約에依하야 오히려解決할수잇는 經濟關係上에도 國家가 干涉할것은 만하나 特히 賣買할것은 最低制限價格이 最近二年間에 二割五分의 低下를示하엿슴으로 이것은第二次五個年計劃의計劃인 三割五分의低下에比하야 稍不足하나 一定한配定價를 政府에提供한뒤는 그殘存生產物을 自由價格으로 파는것을 許케되 農民이 商品의가를統制下에 하엿스므로 이에依하야 國營店舖도 同樣의價格引下를 안할수업게되엿다

×

元來 蘇聯에서는 勞働賃金은 公定市勢에 依한것 自由市場의 賣買에 依한것 或은 配定에 依한것等 幾多의 方法으로 配給되엇든것이다. 昨年까지는 勞働者들이 配定票로써 그들의 生活必需品을 統制된 低物價로 살수잇다 또 必需品以外의 物品을

購入할때에는 多少 高價로써 國營商店에서 買出商品을 살수잇고 그보다도 一層 高價를 내이면 必要에 따라서 어느때든지 自由市場에 買出의 商品을 購入케되엿든것이다.

×

右中 配定制度는 勞働의不足이 그必要를 업새게 한것이며 또 蘇聯國家로서 가장高價格의 勞働者에게 分配하야 有効한 計劃的配給의길을 講究함에잇서도 必要缺 될것이다 그러나 그뒤에 生活必需品의 不足이 緩和되엿고 그商業價格은 低下케되엇고 或은 配定制에依한 統制價格이 引上되야 商業價格과 一致 이런 商品의 配定制度가 廢止되엇다 此等商品의 價格은 供給이 許하면 다시引下케되어잇슴이 至當하다.

×

勿論 蘇聯의 勞働者들이 無料의醫藥治療, 無料敎育制度, 其他의 社會政策的施設을 享有할수 잇는바 그賃金平均의 大體三分一에相當한 社會政策的收入을 엇게되엿으나 이及 勞働力의 節約이 되고 또 人口의增加도 國家의恩典을 抑하고 男女를 不問하고 모든사람에게 職業을주므로 失業의 恐怖를 안밧는다

×

이와가티 蘇聯은 經濟上에 洛入하는 過失은 매우 過重가된은 勿論이나 그 演變은 아마 資本主義制度에 基한演變와가튼 큰 程度는 아닐것이다 이것이 成功하면 蘇聯이 計畫하는 究極의目的이 全階級의利害를 全然一致케하라는 大理想에도 到達할수잇스므로 도저히如何를 不拘하고 此等의實驗이 人類史上 가장 重視할것의 하나이것은 疑心할것이아니다。(終)

今年棉作도 凶作

發芽期遲延、旱魃、多雨寡照

水害發生等被害가深刻狀態

三南大減收豫想

今年의棉作은 發芽期의遲延, 旱魃이잇섯고 또 開花로부터開絮에 일으기까지의 雨多濕、日照不足、各地의水害發生으로 深刻한被害가잇섯는데 過般의棉作主任官會議에서 報告된 各地의狀況으로써 豫想以上深刻한 被害로 南朝鮮各道의 棉作은全南의 二割五分減收를 中心으로 昭和六年의 大凶作에도 匹敵한 大減收가 豫想되다 卽 京畿道는 作付一萬五百町步로 二割減收豫想이더니 그뒤의依然減收이다 全北도 段當百三斤程度로 平年作이지만 前年에 比하야八分의減少이다 慶北은 段當 九十斤 約一割强의減收豫想 忠北作付一萬二千六百九十町步, 忠南一萬五千四百五十三町步로 平年作인데 前年보다 一割의減少, 全南은 作付五萬六千町步로 昨年은 段當平均百二十斤에 達하엿스나 今年은 겨우 八十斤乃至 九十斤에 不過하야 二割五分의大減收이다

米增收期待

農林省의發表

【東京電話同盟】 八月十五日現在의今年度水稻作況은 農林省으로부터稍良이라고 發表한바 農林當局의豫想에 依하면 普通作況에 매우 接近한稍良이므로 가령 前五個年平均을 取하면 五千九百十四萬石으로 平均豐凶二分增收로하면六千三十萬石 三分增收로잡으면 六千九十萬石으로 豫想되야 結局凶作이든 昨年의 五千七百四十五萬石에比하면 多少增收가 期待된다고 한다

上半土木建築

四千萬을超過

【總督府社會課調查】 今年上半期의 全朝鮮土木建築請負契約高는 總額二千九百四十萬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八百六十四萬三千圓의 增加로 이것은 大部分官營事業을 主로한것인데 그밧게 民間小工事及 道直營砂防工事等을 合하면 四千萬圓을 突破하야 土木은 總額의五割二分 建築은 同四割八分으로 從來 土木六割、建築四割의比이엇든것이 最近 都市의 發展大工場建設等인데 地方別로 보면 다음과가티 中朝鮮、北朝鮮方面이 顯著하다 (單位千圓)

	上半期	比前年同期
中部	八、一八三	四、一〇四
南部	二、七九八	四、一〇一
西部	五、四七二	六、三四七
北部	一二、九四七	六、二〇七
計	二九、四〇〇	二〇、七五七

中旬滿鐵收入

【大連發商通】 八月中旬의 滿鐵鐵道收入 客車收入 五十八萬八千百九十六圓 貨車收入 二百十萬二千八百七十七圓 雜收入 十五萬六千五百九十二金 計 二百八十萬六千五百九十二圓으로 前旬에比하야 客車收入은 一千五百三十三圓의 減收, 貨車收入은 六萬七千二百四十九圓 雜收入은 一萬九百七十四圓의各增收로 差引合計七萬六千六百九十圓의增收이다

各地米拂下量

【大阪電話商通】 이번에 賣却키로 決定한政府米五十萬石의 各米穀事務所別拂下豫定數量은 다음과 갓다고 (以上單位俵)

東京	三七五、〇〇〇
大阪	二五〇、〇〇〇
門司	二五〇、〇〇〇
名古屋	二〇〇、〇〇〇
神戶	一七五、〇〇〇
合計	一、二五〇、〇〇〇

大阪商船配船增

大阪商船의 日本內地 北朝鮮間의 航路는 東京、北朝鮮線三千噸級二隻 大阪、淸津線二千噸級四隻 阪神北朝鮮直行線三千噸級二隻을 配船하야 北朝鮮 滿洲產物의 輸送에 힘쓰는데近年 此等輸送貨物의 激增에依하야 右既定配船은 이에應할수업스므로 그中東京北線에三千噸級一隻을 다시 增配키로되야 目下 準備中이라고

中國小麥

買付가旺盛

製粉業者

對濠通商決裂에 依하야 濠洲小麥의 輸入禁止說과 加奈陀小麥의凶作을 豫想하고 小麥은 逐日 昂騰하는데 一面 中國의小麥은 今年에잇서 豐作으로 今秋 上海에서出廻할小麥은 例年보다 一、二割이 增加하야 四十萬噸이라고 하며 또 價格도比較的低價이므로 日本製粉業者도 中國小麥에 注目하고 벌서 投機的買付가 시작한바 朝鮮에서도 豐國製粉이 最近 一千噸을 買付하고 이로因하야 朝鮮의上

電氣統制問題에

朝鮮은傍觀키로

電氣協會理事會에서

朝鮮電氣協會에서는 廿七日理事會를 열고 日本內地의 電氣統制問題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한바 一、二理事로부터 日本內地電氣統制에對하야 朝鮮은 無關係이나 日本內地電氣協會와 呼應하야 反對의決議를 하자는 反對意見을 開陳하엿다 그러나 이에對하야 朝鮮의電氣統制는 이미 確立되고 日本內地의電氣統制에依하야何等影響을밧을理만아니라 總督府의 政策과 密接한關係가잇스므로 反對의 決議함은 不穩當하다는 自重說이 잇서 結局 決議에 모일으고 散會하엿다한다

颱風의一過로

淸算、正米一齊低落

颱風의襲來로 政府米賣換拂下에不拘코 二十七日은 仁川期米先限三十圓五十六錢、大阪期米先限 三十二圓七十八錢에 奸勢이더니 颱風一過로 二十八日前場에는 仁川期米先限三十圓二十七錢、大阪期米先限 三十二圓五十二錢으로 反落되어 昨日高價에서 仁川은 二十九錢、大阪 二十六錢低이엇스며 各地正米도 暴落되엇다

米穀生產在米高

九月一日부터京畿道調査

◇…自管法運用基礎

米穀政策의 根幹으로되는 米穀統制法의强化를 圖키爲하야 今年의特別議會에서 通過되여 近間施行되기로된 米穀自治管理法運用의 基礎될 米穀生產高及現在高調査는 드듸여 今秋부터 開始하기로되엿는데 京畿道에서는 일즉이 諸般準備를하여오든中 調査員의囑託其他準備도 大體로 一段落이되엿스므로 九月一日을 期하야 當日午前零時의 米穀現在高를 調査하기로되여이 調査員의宣傳삐라五萬枚를 印刷하야 管內一般에게 配布하엿다 그調査의對象될米穀은다음과갓다

一、倉庫營業者 運送營業者 運送取扱營業者 農會 產業組合 金融組合 府邑 面水利組合 產米改良組合 購買組合及銀行等의倉庫와 農業倉庫에잇는米穀

一、米穀生產者及耕地所有者의倉庫 헛간其他貯藏場所에 現存한米穀

一、米穀販賣業者及精米業者의店舖 工場又는 倉庫其他의 貯藏場所에 現存한米穀

一、社寺 敎會所 布敎所等의 貯藏場所에 現存한 米穀

一、鐵道의驛(局鐵 私鐵)其他棧橋 物揚場等에 所在한米穀

一、船舶 貨物自動車 荷馬車又는 私設鐵道의 貨車(局鐵은總督府에서 調査)積載한 米穀

以上의 米穀에對하야는 調査員이 調査當日各其 調査하게될터인데 該當者는 眞實한 數量으로 對答하여주기를 바란다한다

米日爲替少弱

【京城廿七日發同盟】 廿七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廿九弗四十五仙으로 二仙低、買廿九弗四十四仙으로 二仙低

◆東京爲替 (廿八日)

對米	賣	廿九弗八分三
	買	廿九弗十六分七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大阪爲替 (廿八日)

對米	賣	廿九弗卅二分一
	買	廿九弗十六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卅二分一
	買	一志二片十六分一

取引停止

(八月二十五日) ▲食料品雜貨商 京城府黃金町四丁目一〇五番地 太平商會金圭源 ▲京城府永登浦町二五三番地沈鎭業 ▲京城府黃金町五丁目松枝作兵衞

經濟界消息

◎[illegible]京城商工[illegible]

聯合會改組

聯合會에서는 來九月三日午後三時부터 京城商議에서 總會를 열고 改組案의 決議를하기로되엇는데 會長高居源三郞氏의 辭任에依하야 다시選任하기로되고 內容의 强化擴大에 依하야 相當히 權威者를 就任케할모양인데 或은 賀田商議會頭가 兼任되리라는 豫想도잇다고

經濟寸鐵

◎ 重要國策決定으로 公債增發、大衆課稅를 念慮하야 財界에 一抹不安이잇는 모양이라고

◎ 不安이 어느 程度이겟느냐? 두고 보아야 알일 미리 겁낼것도 업지

○ 投機抑壓이 政府方針으로 이에 걸변 株界는 "떼마"事件으로 暴落되것은 지난달인데

○ 投機抑壓인 이時代에 射倖心을 쏘하는 「쉬스」가 잇스니 웬일

○ 四年後에 열녀 萬國博覽會의 入場券을 割增金附로 發賣한다나

○ 富籤國營論까지 그럴듯 하게 떠드는 이판이니 별일 다 생기나 보다

商況 【廿八日】

株式 鐘新先驅 上勢

前場保合 今前場은 雙方暴保合으로 保合不離이엇스니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二十四圓六十錢 日產十錢高인 七十九圓四十錢 大新十錢低인 六十七圓二十錢 鐘新二十錢高인 百六十二圓八十錢 朝新十錢低인 三十一圓九十錢 朝石四十錢低인 三十五圓八十錢 拓新二十錢高인 二十三圓二十錢에各 大引되고 日產新二十六圓五十錢寄一本이잇섯다

後場好勢 後場은 大阪長期休會 短期一時開立會로 當地도 早引이엇는데 當限不振인 株界의 好感으로 諸株一齊高의 上進이엇스니 卽 前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高인 百二十五圓十錢 (高價五圓五十錢)日產二十錢高인 七十九圓六十錢 鐘新二圓三十錢高인 百六十五圓十錢 大新四十錢高인 六十七圓六十錢、朝新三十一圓九十錢、朝取七十三圓八十錢、帝人百十八圓丁、日魯六十九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日產新五十圓五十錢、拓新二十三圓三十錢

大底入의與否

依然所見不一

七月二十四日再開하야 東京東新이 百二十一圓二十錢에 下放된後百二十圓三十錢이두번 百二十圓九十錢이세번잇서서 實底하야도 떠러지지안흐니 大底入完了라하는 一方百二十圓割은 안되엇지 그래신 시원 스럽게 올느지 못하는 大底入되지안홋論擁가 아니냐하야 强弱雙方主張에 一理가잇다

成都事件이라던지 國策問題라면지아프로 市勢를抑壓하고 株氣를좋거리가잇는만큼 一氣棒上이반드시 잇슬것을미들수 업스나百二十圓이 안께어질形勢가濃厚하다면 消極的으로나마 强氣로進할것이오 惡日買로 方針을세울것이 妥當할것갓다는말이잇다

警戒的强氣觀

雜株高도 投機買에 依한것이아니오 採算에 依存한것이므로下値는 엇슬것이오 採算이 膨脹하면 어떤 程度의 인푸레라는것을 생각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增稅가 어느程度일지 不明한데다가 取引所制度改革問題가 남어잇스므로 이것이 決定되기까지는 큰 變動을 바라기어려운터이나 다만 大勢的으로팔수업는 市勢로보아 大差가 업슬것이다。

好轉의時期?

市勢의氣味는 顯著히 良化되려로市場一角에 秋高景氣待望人氣가생기는터이나 國策閣議의動向如何로는 秋高期待를 水泡에歸케하는 輕率하다는 警戒論도잇스나 秋高期待는 百花爛漫을바라기는 輕率하다는 警戒論도잇스나 時期問題라는解釋이可할듯하다

實物前場取引

◆鐘紡新 一四〇、〇〇▲伊那電鐵新 吉、今▲滿洲興業 三、吉▲東洋拓殖 丟、吉▲北樺太鑛業 三、〇〇▲富士木材 一、今▲日產木材 丟、〇▲南鮮電鐵 三、〇〇▲日本糖工新 元、六〇 (取引高一八〇枚)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一五

佛貨四分 一九八、四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一三

第三五分 一〇一、六八

今日財界 (廿八日)

◆米 (單位錢)

	今前	前日比
仁川期米先限	三〇、二七	二九
大阪期米先限	三二、五二	二六
◎正米(仁川)一等	三二、三〇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一 年	一分賃
一 年	[illegible]

◆綿 (單位錢)

	今前	前日比
大阪綿絲		
大阪人絹		
大阪綿花		
日本棉花		
朝新	七三、〇	一〇高
東新	一二五、一〇	五〇高
日產	七九、六〇	二〇高

◆國債 (先物單位)

甲五分利	一〇一、四〇	
四分	一〇一、四〇	

期米 颱風一過 反落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二圓六十九錢止와共히 三十圓四十八錢에 寄를止한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六十五錢인四丁反落을擲하고 三十圓四十四錢인 丁四低로 寄를始한後阪地五十二錢으로 五十四錢에止寄를伴하야 二十七錢까지下擲하엿다가三十錢에 寄를止하엿다

後場下進 後場은三十圓二十九錢에 始擲後 三節二十六錢으로 二十八錢四本同價로 下進止擲하다

雨後俄然反落

颱風은遠走!

政府米二百萬石의 買替拂下와 朝鮮에 保留된 政府米二萬石의 整理拂下를 發表하엿슴에도 때마침颱風襲來의 憂慮가잇서反히 二十六內外의 反撥을示하엿든바이나 危險視하든颱風은 昨夜全南麗水에 上陸하야 東經百三十度北緯三十八度에서 每時間 六十「키로」의 速力으로 江陵沖을거처 北東으로 脫走하엿슴에따라 市勢는俄然軟態에 傾하야 各地共히 一齊反落을 開始하엿다 今回 朝鮮의 豪雨로 그被害가 어떠한 程度에 達하엿는지는몰으나 八月十五日現在農林局調査에依하면 京畿平南은 多少不良하나 三南地方은 良好하야 今後天候만順調이면 平年作은 僅保할것으로昨二十七日에 發表되엿다그런데本月十五日以後의 朝鮮의天候가順調롭지못하야 今回南北各地의被害가 또한相當한모양임으로平年作은 期待키難할것이라는 商談이多하다

本格的市勢는

二百十日後?

危險視되든 颱風은 中部以南의 오로 脫走하기 때문아 今朝正米는 暴落을 告하엿스나 市勢는 다시 底堅의狀態를 보하야 又復保勢하는 一齊反落後에는 다시 陸續의狀態에 入하는 「二百十日」前後의 頃의 今朝現在의 常規時代期 十八、九의 仁川米界의 低落市勢가 잇슬것으로 期正解의 商談이多하나 그러나 아직도 二百十日을 經過하기前이며 又는 二百二十日까지의 天候만으로 實方으로서도 賣人의行動을 加하지못하고 當分時日을 期待하는中이다 何如間二百十日을 지난後에는 大體의趨勢도 判定할수 잇스며 東軟兩方도 態度를 確定할수 잇스리로 二百十日後에야 비로소 本格的市勢가 展開될 모양이다。그러나 米價가 高位置에 잇는만큼 境遇에 依하야 反落市勢는 잇슬지언정 上放하기는 容易치못할것이라고 一部商談이 濃厚하다 果如何?

市場六感

◎株…大阪長期當限納會는平穩保合 ▲短期는人氣가 힘업스나 底心人氣이엇스나 ▲國策大綱決定으로도 安今後에잇다하야 警戒가남어잇고 成都事件으로 日中問題가 또말성거리임으로 이래저래또 上伸難 ▲그러나國策關聯의 氣라던지 日中關係라던지로惡目이잇다드래도 팔어서成功할 時代는 지나간것가트니 積極的買는안되래도 突込買로臨하리라는것이 賢明한일이듯

◎米…颱風一過後에 市勢도 또한一落 그러나 아직도天災期가남아잇슴으로 滑落은許하지못하는 ▲八月十五日 現在 朝鮮의稻作은 平年作의僅保라나그러치만 十五日以後의天候가不良하엿도망정 減收될것도事實 ▲그러고 颱風襲來의念慮로 政府米二百萬石拂下의行動을許하지안켓스니 이로부러 그餘裕이잇슬모양? ▲何如間二百十日을 지난後부터本格的市勢가 展開될모양이니 當分時日을 期待하는것이 賢?

綿絲市勢觀測

政府不安의歐洲消費減과 季節關係의要貰에 눌리여 作況의惡化를 無關하고 棉은 下向의傾向이며 歐洲의消費減도 結局 戰爭까지 發展할與否에 依하야 決定될것이다。

◇

東京에 金融의緩因을 못버서나고 一面 天候不良으로 第一回以後 收穫은 六七十萬俵乃至 百萬俵의減少가 豫想되는點을 생각하면 弱하게 봄이 無理가아닐듯하다 그러고 日本內地의需給狀態는 依然現實의 不實와 會社의株價好轉으로因한增産設置 前途에對한不安이 相當한것이 事實이다。

◇

그러나 目下의情況은 在荷其他의餘計로 보아서 아직悲觀을 要치안흐므로 目前에잇서 너무 弱하게 보는것에 기우는것은 좀 생각할것이라고

重要商品界事情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 買方

	賣方		買方	
當限	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米 仁川 金益證券 株式會社 / 株 東益商店 光 (廣告)

各地正米

京城下放 天候不良로 政府米의 秋化를보고 期配二十五錢 大下放이엇다 ◎三等 三一、一五 四等三〇、八五 一等白米 三三、〇〇

仁川崩落 天候安定豫想과 期米의 崩落으로 人氣一變하야 고 取引不活潑이엇다 十五錢崩落이엇다 ◎三等 三一、一五 四等三〇、八五 一等白米 三三、七〇

群山反落 期米의 一齊反落과 颱風遠走와 共히 天候恢復을 豫想하고 人氣暴落하야 氣配一擧로 十五錢下落이엇다 今朝는 電話不通으로 對日本內地商談은 沒涉이다 ◎三等三一、八五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四、〇〇

▲木浦、釜山、大邱正米市況은電信電話不通으로 未着

◆株式 廿八日

◆朝取短期 (前引 / 當限 / 後引 / 取引高) — [illegible]

◆鑑定代引日步 — [illegible]

◆大阪短期 — [illegible]

◆東京短期 — [illegible]

◆東京現物 — [illegible]

◆朝取長期 — [illegible]

金融 廿八日

◆海外經濟 — [illegible]

◆朝鮮銀行勢 — [illegible]

◆日本銀行勢 —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 [illegible]

◆東京金利 — [illegible]

◆大阪金利 — [illegible]

◆對外爲替 — [illegible]

◆金買入價 —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 [illegible]

◆京城府中金銀價 — [illegible]

穀類 廿八日

◆京城正米 — [illegible]

◆京城雜穀 —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 [illegible]

商品 廿八日

◆京城綿系布市勢 — [illegible]

◆京城綿布 — [illegible]

◆綿袢油冲價 — [illegible]

◆豆油冲價 —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 [illegible]

◆滿洲商況 —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 [illegible]

懸賞

廣告圖案懸賞募集

弊店에서 左記要領에依하야 廣告圖案을懸賞募集함

一、廣告의種類 當取引店의營業案內廣告로서十三段新聞一段二十行(一寸六分幅)範圍內의圖案으로하되色彩는黑白에限함(但ボカシ는自由)

二、廣告圖案에表現될要項 期米、株、綿絲의取扱鎬取引店、仁川海岸町三丁目等을主體로하되特히商號乘과期米賣買의表現할것 右要項이遺漏업시表現되고 一見에高尙且確實한取引店인印象을與할만한圖案을要함

三、募集期限 昭和十一年九月十日까지弊店調查部로送付할것 最終日의差出局의 消印이잇는것은有効로함

四、懸賞額 一等五十圓一人、二等二十圓一人、三等金十圓一人(懸賞金은卽時郵送함) 圖案은權威者의嚴選에依하야等級을査定하고新聞紙上에發表함(但原稿는一切返付치아니함)

五、發表 昭和十一年九月廿五日以後에募集廣告揭載한新聞에發表

仁川府海岸町三丁目 朝鮮取引所米豆取引員

東 趙俊鎬取引店

朝取期米賣買高

◆朝取期米賣買高 — [illegible]

大邱期米

◆大邱期米 — [illegible]

期米 廿八日

◆朝取期米 — [illegible]

◆大阪短期 / 大阪長期 — [illegible]

朝取取引員 株式會社 アジア證券 京城府南大門通リ二ノ一 日生ビル

◆大阪期米 — [illegible]

◆木浦期米 — [illegible]

◆群山期米 — [illegible]

◆釜山期米 — [illegible]

金.銀.白金 德 特製販賣買引金代 地方注文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 元利 製造

商品 廿八日

◆大阪綿系 — [illegible]

◆大阪棉花 — [illegible]

◆各地人絹 —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 [illegible]

◆横濱生糸 — [illegible]

◆大阪砂糖 — [illegible]

◆海外砂糖 — [illegible]

◆外米期米 —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 [illegible]

◆東京期米 —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 [illegible]

◆大阪正米市況 —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 [illegible]